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李 秉 德

트롤리 문제 해소하기

－ 침묵주의적 덕 윤리를 기반으로 －

成均館大學校 一般大學院

哲學科

金 仁 泰

碩
士
學
位
請
求
論
文

트
롤
리
문
제
해
소
하
기

2
0
2
5

金
仁
泰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李 秉 德

트롤리 문제 해소하기

－ 침묵주의적 덕 윤리를 기반으로 －

Dissolving the Trolley Problem

－ A Quietist Virtue Ethics Approach －

成均館大學校 一般大學院

哲學科

金 仁 泰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李 秉 德

트롤리 문제 해소하기

－ 침묵주의적 덕 윤리를 기반으로 －

Dissolving the Trolley Problem

－ A Quietist Virtue Ethics Approach －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24 年 10 月 日

成均館大學校 一般大學院

哲學科

金 仁 泰

이 論文을 金仁泰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定함.

2024 年 12 月 日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기존 이론들의 대응 검토	7
1. 트롤리 문제와 비결과주의	7
2. 프랜시스 캠의 허용할 수 있는 해악의 원리와 비판	14
3. 피터 바우만의 평등한 해악의 원리와 비판	31
4. 비결과주의 기획 비판: 일원주의적 윤리 이론의 한계	38
제 3 장 트롤리 문제의 해소: 덕 윤리와 침묵주의	44
1. 덕 윤리 소개	44
2. 침묵주의와 덕 윤리의 결합: 침묵주의적 덕 윤리	61
3. 덕 윤리와 트롤리 문제	71
제 4 장 예상되는 비판에 대한 대응	86
1. 침묵주의적 덕 윤리가 상대주의를 함축한다는 비판과 대응	86
2. 침묵주의적 덕 윤리의 급진성과 과격성에 대한 비판과 대응	89
제 5 장 결론	93
참 고 문 헌	97
ABSTRACT	99

표목차

표 1	33
표 2	82

그림목차

그림 1	12
그림 2	12

논문요약

트롤리 문제 해소하기: 침묵주의적 덕 윤리를 기반으로

본 논문의 목표는 트롤리 문제에 대한 기존 비결과주의 윤리 이론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덕 윤리의 관점에서 트롤리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이론들이 일원주의적 접근으로 인해 덕목들의 충돌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트롤리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 다원주의적 윤리 이론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덕 윤리와 침묵주의를 결합한 침묵주의적 덕 윤리(Quietist Virtue Ethics, QVE)를 제안한다. QVE는 객관적인 덕목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철학이 특정 덕목이나 선택지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전제를 거부하며,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는 철학이 침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트롤리 문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의 해소를 통해 철학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논문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트롤리 문제의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인 표준 사례, 뚱뚱한 남자 사례, 루프 사례에 대해 프란시스 캠의 허용할 수 있는 해악의 원리와 피터 바우만의 평등한 해악의 원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비결과주의 이론들이 일원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트롤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한 원인을 밝힌다. 제 3 장에서는 덕 윤리의 기본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덕 윤리가 다원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일원주의적 윤리 이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어서 덕 윤리를 통해 트롤리 문제에서 특정 선택지를

정당화하려 했던 반 질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침묵주의적 덕 윤리가 트롤리 문제들 간의 도덕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음을 논의한다. 제 4 장에서는 침묵주의적 덕 윤리가 상대주의를 함축한다는 비판과 이 이론이 너무 급진적이고 과격하다는 비판을 검토하며, 이러한 비판들이 QVE 에 심대한 타격을 주지 않음을 보인다. 이를 통해 QVE 가 트롤리 문제를 해소하고, 더 다양한 윤리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주제어 : 트롤리 문제, 비결과주의, 덕 윤리, 침묵주의, QVE

제1장 서론

본 논문은 “트롤리 문제”로 잘 알려진 윤리적 상황에 대해 덕 윤리와 침묵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철학은 트롤리 문제에서 한 가지 답변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잘 알려져 있듯, 트롤리 문제는 필리파 풋에 의해 고안되어 많은 윤리학자에게 논의의 주제가 된 유명한 윤리적 상황이다. 트롤리 문제를 대략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트롤리 문제: 우리가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라고 가정해 보자. 이 기차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 멈출 수 없다. 그리고 이 기차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선로 위에 있던 5 명의 인부가 사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차의 방향을 전환하면 다른 방향의 선로에 있던 1 명의 인부가 대신 죽고 5 명은 살 수 있다. 이 경우, 직관적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런데 다른 경우를 보자. 만약 우리가 지나가던 행인이고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선로 위의 5 명에게 돌진하는 기차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확인해 본 결과, 다리 위에서 있는 매우 뚱뚱한 남자를 밀어 그 남자를 이용해 기차를 멈춰야만 5 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경우, 남자를 밀 것인지 질문을 받을 때 직관적으로 우리는 뚱뚱한 남자 한 명을 밀어 5 명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긴다. 왜 이런 직관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트롤리 문제는 5 명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한 명을 희생하는 것 사이의 선택지를 고민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직관적 판단을 만들어내는 두 사례 사이의 도덕적 차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 문제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일부 비결과주의자들은 이 두 사례 사이의 도덕적 차이를 잘 설명하는 이론을 고안하고자 하고, 반면 이 문제가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다른 비결과주의자(예를 들어 강한 의무론자)나 결과주의자는 이 문제가 실은 거짓 문제라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이 문제에 답함으로써 윤리 이론들은 직관과 도덕적 원칙 간의 충돌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다양한 윤리적 원칙 중 어떤 것을 가장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제시하고 그 입장이 타당한지 점검할 수 있다.

그런데 의무주의와 공리주의와 함께 유력한 규범적 윤리 이론으로 주목받는 덕 윤리는 트롤리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덕 윤리 이론가들이 트롤리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덕 윤리가 특정 도덕적 원칙의 우위성보다 현실에서 덕스럽게 사는 방법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덕 윤리가 규범적 이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트롤리 문제와 같은 가상 상황에도 답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발생한 일에만 답변할 수 있는 윤리 이론은 온전한 규범적 이론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존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덕 윤리가 트롤리 문제에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덕 윤리는 근본적인 도덕적 개념으로서, 특정한 도덕적 원칙이나 공리보다 개별적인 덕목에 주목한다. 이러한 덕 윤리의 특성은 기존에 트롤리 문제에 답하고자 했던 다른 이론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먼저, 덕 윤리는 개별 덕목들을 기본 단위로 본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적인 성격을 띤다. 특정한 원칙이나 도덕적 원리를 가장 근본적이거나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일원주의적 윤리 이론들과 달리, 덕 윤리는 개별 덕목들 각각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원주의적이다. 그리고 덕 윤리의 다른 특징으로는 실천적 지혜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개별 덕목들을 많이 알고 그 덕목을 개별 행위에 적용하면 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개별 덕목을 알고 그것들을 현실 삶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숙고와 경험적 연습이 필요하다. 즉, 도덕적 판단은 단순히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따르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심층적이고 사려 깊은 숙고와 연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덕 윤리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행위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덕 윤리의 특징은 트롤리 문제에 대한 ‘침묵주의적 덕 윤리’를 옹호하도록 하는 배경이 된다.¹ 침묵주의적 덕 윤리란 언어게임을 정당화하는

¹ 침묵주의란 원래 철학에서 긍정적 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입장에 대한 한 해석이다. 보통 ‘정적주의’라고도 많이 번역되는데,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논고』에서 “말할 수 없는 것에 침묵해야 한다”는 문장과 연결지어서 이 입장을 이해해야 하기에 본 논문에서는 이런 맥락을 보다 직관적으로 반영하는 침묵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침묵주의는 기본적으로 철학적 문제 전반에 대한 입장이지, 침묵주의의 아이디어는 윤리학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맥도웰(1979)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덕 윤리 이론에 침묵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침묵주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올바른 행위의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리고 세피엘리(2021)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윤리학적 입장을 ‘객관주의적 침묵주의’라고 규정하고 윤리학이 특정한 형이상학적 속성이나 의미론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도덕적으로 옳거나 잘못됨의 기준을 외부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 논문에서는 트롤리 문제에서 철학이 특정한 답을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정당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침묵주의적 덕 윤리’라는 용어를 한정적으로 사용한다.

초월적 사실이나 근본적 원리가 없고, 그런 것이 없어도 언어게임이 잘 성립한다는 침묵주의 논제를 윤리학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행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철학이 침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입장이다. 덕 윤리는 트롤리 문제에서 사례마다 다른 정도로 덕목들이 충돌하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 이상의 덕목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덕 윤리는 특정한 덕목의 우위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덕목을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인지를 대답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특정한 답을 옹호해 줄 수 없다. 더 나아가, 덕 윤리는 올바른 행위, 덕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은 특정한 원칙을 따르거나 어기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실천적 지혜에 기반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특정한 덕목이나 원칙을 적용해 특정한 답을 정당화하는 것은 덕 윤리에 있어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덕 윤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입장은 침묵주의적 논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침묵주의는 트롤리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는 않지만, 일원주의적 원칙을 도입하여 한 가지 선택지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잘못된 요구를 거부한다. 이를 통해 트롤리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문제를 '해소'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최종 목표는 침묵주의적 덕 윤리를 통해 트롤리 문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님을 보이는 것이다. 즉, 잘못된 요구를 제거하고 다양한 입장과 주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문제를 해소해야 함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철학이 도덕적 딜레마를 직면했을 때 특정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보다 문제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철학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다. 먼저, 2 장에서는 트롤리 문제에 대한 기존 이론들, 특히 트롤리 문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비결과주의자들의 해결책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악이 허용될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한 비결과주의적 기준을 제시하는 프란시스 캠의 이론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역할 평등성과 위험 평등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트롤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피터 바우만의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두 이론 모두 트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며 그 근본적인 원인이 트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일원주의적인 접근법을 채택했다는 점에 기인함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3 장에서는 일원주의적 윤리이론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다원주의적 특징을 지닌 덕 윤리를 소개할 것이다. 덕 윤리가 왜 다른 이론들과 달리 다원주의적이고 다른 이론들과 차별점을 지니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덕 윤리는 침묵주의적 논제와 결합하게 되며, 침묵주의적 논제를 받아들인 덕 윤리로 ‘침묵주의적 덕 윤리’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덕 윤리의 관점에서 트롤리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특정한 선택지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 질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트롤리 문제를 덕 윤리를 통해 한 가지 선택지를 골라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덕 윤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은 침묵주의적 덕 윤리를 기반으로 하여, 철학이 트롤리 문제에 있어 한 가지 선택지를 정당화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한 가지 선택지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 조언을 줄 수 있다는 방식의 답변을 통해 트롤리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해소되어야 할 문제임을 보일 것이다. 4 장에서는 이러한 덕 윤리와 침묵주의에 기반한 답변에 제기될 수 있는 가능한 비판을 검토하고, 그것들이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4 장에서

다를 비판은 첫째, 침묵주의적 덕 윤리가 상대주의를 함축한다는 비판과 둘째, 트롤리 문제에 대해 철학이 특정 선택지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윤리적 판단의 의미를 약화하는 덕 윤리의 과격성이 윤리학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다. 4 장의 논의를 통해 이러한 비판들이 침묵주의적 덕 윤리에 심대한 타격을 주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제2장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기존 이론들의 대응 검토

1. 트롤리 문제와 비결과주의

트롤리 문제에 대한 비결과주의적 해결은 두 가지의 기본 사례들에 대한 직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두 가지 사례는 각각 표준 사례와 뚱뚱한 남자 사례다. 두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준 사례: 당신은 기차의 기관사고, 5 명의 선로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가 있다. 5 명을 선로에서 대피시킬 방법은 없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로의 방향을 바꾸는 레버를 당겨 기차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기차의 방향을 바꾸면 다른 방향의 선로에 있던 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다. 이 한 사람도 다섯 사람과 마찬가지로 대피시킬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 상황에서 기차의 방향을 돌려 5 명을 살리는 것은 허용가능한가?

뚱뚱한 남자 사례: 당신은 지나가던 행인이다. 그리고 5 명의 선로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가 있다. 5 명의 사람을 선로에서 대피시킬 방법은 없다. 5 명의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다리 위에 있는 아주 뚱뚱한 남자 한 명을 밀어 기차를 멈추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다. 이때 뚱뚱한 남자를 밀어 5 명을 살리는 것은 허용 가능한가?

많은 사람은 표준 사례에서는 기차의 방향을 바꿔 5 명을 구하고 한 명을 희생하는 것이 옳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고, 뚱뚱한 남자 사례에서는 뚱뚱한 남자를 밀면 안 된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 트롤리 문제는 표준 사례에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옳고 뚱뚱한 남자 사례에서는 뚱뚱한 남자를 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트롤리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이중 효과의 원칙(Doctrine of Double Effect, 이하 DDE)’이 있다. 이중 효과의 원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해악을 예측하는 것과 의도하는 것의 구분에 따라 행위에 이중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원칙이다. 가령 표준 사례에서 우리가 5 명을 구하기 위해 기차의 방향을 돌릴 때, 5 명을 부딪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의도된 결과다. 반면 바뀐 선로의 한 명을 치는 것은 의도되지 않은, 예견된 피해다. DDE 는 더 큰 선을 위해 더 적은 악을 허용할 때는, 그 악이 의도되지 않은 예견된 피해일 경우일 때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DDE 는 곧바로 비판에 직면한다. 먼저, DDE 는 직접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지만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옹호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령, 폭탄을 던져서 트롤리를 멈추고 5 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 폭탄 파편에 맞아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1 명의 죽음은 의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DDE 의 입장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행위 같지만 캄과 같은 학자들은 이 경우에 폭탄을 던지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² 따라서 DDE 는 적절한 이론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DDE 는 강한데,

² Kamm(2007), p.24

그것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해치는 개인 내적인 경우를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가령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경우 말이다. 이런 점에서 DDE 는 타당한 이론이 아니다.

필리파 풋은 트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의 구분을 도입한다. 소극적 의무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의무를 의미한다. 즉 누군가를 해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누군가를 죽이면 안 된다는 식의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의무들을 뜻한다. 그리고 적극적 의무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의무로 ‘불쌍한 사람을 구하라’거나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라’는 등의 명령을 포함한다. 풋은 가장 엄중한 적극적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소극적 의무가 포함된 경우만큼 무게감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이에 따르면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소극적 의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의 차이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그 원칙은 5 명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 1 명을 죽이는 것이 더 나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5 명을 죽지 않도록 구하는 것은 적극적 의무에 해당하는 반면 1 명을 죽이는 것은 누군가의 목숨을 뺏으면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를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면 똑같이 죽이는 상황에서는 다수를 구하는 것이 옳다. 즉, 5 명을 죽이는 선택지와 1 명을 죽이는 선택지가 있다면 5 명을 구해야 한다. 이 원칙을 트롤리 문제와 연관시켜 적용할 수 있다. 표준 사례를 살펴보자면, 기관사는 5 명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방향을 튼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1 명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를 어기게 된다. 이 경우에는 5 명을 죽이는 것이 1 명을 죽이는

것보다 나쁘다는 원칙을 적용해서 기차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옳다. 반면 뚱뚱한 남자 사례에서 지나가던 행인은 5 명을 죽게 내버려두거나 아니면 뚱뚱한 남자를 죽여 5 명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 명을 죽이는 것이 5 명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 나쁘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뚱뚱한 남자를 밀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를 구분함으로써 풋은 두 사례에서 한 명을 희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한다.³

하지만 풋의 설명은 비판에 직면한다. 주디스 톰슨은 죽이는 것(죽음을 의도하는 것)과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죽음을 예견하는 것)의 차이 구분, 그리고 버튼을 누르는 행위와 버튼을 누르지 않은 행위 모두 똑같이 죽이는 행위라는 필리와 풋의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먼저 톰슨은 풋의 구분을 따를 경우 표준 사례에서 기관사가 아닌 행인이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차의 방향을 바꾸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우리는 기차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만약 우리가 지나가던 행인이고, 5 명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를 봤다. 마침, 우리 옆에 있던 레버를 당기면 그 기차는 방향을 돌려 1 명이 있는 선로 쪽으로 움직일 것이고, 5 명은 살 것이다. 이 경우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5 명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고 레버의 방향을 바꾼다면 1 명을 죽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풋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레버를 당기면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행위자가 기관사가 아니라 행인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방향을 돌리는 것의

³ Foot(1967), pp.12-14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이유에서 톰슨은 쫓을 비판한다.⁴

그리고 두 번째로 톰슨은 쫓이 도입한 그 구분이 잘못된 이유는 그것이 너무 무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한 사람을 단순 수단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주장의 연원을 칸트로부터 찾을 수 있다. 칸트의 정언명령은 '사람을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고 명령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자율성과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뚱뚱한 남자를 밀어 기차를 멈추는 것은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그의 생명을 도구로 삼는 것이므로, 그의 인격을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수단'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왜 그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도 어렵다. 톰슨은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없다고 주장한다. 톰슨은 쫓이 전제하고 있는 칸트적 아이디어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표준 사례에 대한 “루프 변주(loop variant)” 사례를 제시한다.⁵ 루프 사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루프 사례: 루프 사례에서 기차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5 명의 사람을 치고 그 사람들은 죽게 된다. 행위자는 기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방향을 바꿔도 결국 다시 5 명에게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5 명의 사람에게 가해지는 기차의 위협을 제거할 수 없다. 그런 데 우연하게도 반대 방향 선로에 뚱뚱한 남자가

⁴ Thomson(1984), pp.1396-1399

⁵ Thomson(1984), pp.1401-1403

뚫여있다. 그 뚱뚱한 남자는 기차를 멈추기에 충분할 정도로 아주 뚱뚱하다.
따라서 기차의 방향을 바꾸면 그 한 사람을 치고 다섯 사람은 살 수 있다.
이런 경우 5 명을 살리기 위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이 루프 사례와 표준 사례의 차이점은, 표준 사례에서는 기차의 방향을 선회하면 기차는 선회한 방향으로 쭉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반면 루프 사례에서는 기차가 방향을 바뀌어도, 다시 원래의 선로로 돌아온다. 즉,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는 5 명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연한 상황으로 인해 기차의 경로를 바꾸면 선로에 있던 뚱뚱한 남자를 쳐 기차를 멈추고 5 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에 행위자는 기차의 방향을 바꿀 것인지 바꾸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사례다. 다음의 두 그림은 표준 사례와 루프 사례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고안한 그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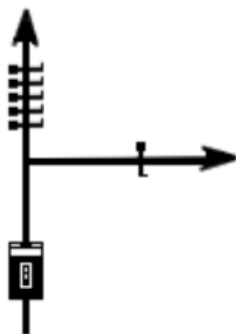


그림 1. 표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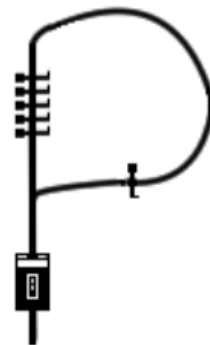


그림 2. 루프 사례

그림 1에서는 기차의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5 명을 구할 수 있다. 즉, 지선의 한 사람이 없었더라도 그 사람은 기차의 방향을 돌려서 5 명을 구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표준 사례에서 방향을 바꾸더라도 그 한 사람을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2를 보면 루프 사례의 경우 표준 사례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루프 사례에서는 방향을 바꾸나 바꾸지 않으나 1 명이 없다면 5 명이 죽는 상황은 마찬가지다. 만약 방향을 바꾸는 경로에 기차를 멈출 정도로 뚱뚱한 한 사람이 없었다면 행위자는 굳이 기차의 방향을 돌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상황에서 행위자가 기차의 방향을 바꾼다면 그 뚱뚱한 한 남자를 5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루프 사례에서 방향을 돌리는 것은 표준 사례보다 더 큰 도덕적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루프 사례에서 방향을 돌리는 것이 표준 사례에서 방향을 돌리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철학자들은 표준 사례와 뚱뚱한 남자 사례와 더불어 이 루프 사례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일관되면서도 정합적인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논문은 이 세 가지 사례, 특히 루프 사례에 대한 기존의 해결책들을 검토할 것이다. 먼저 비결과주의적 해결책으로서 프란시스 캠의 허용할 수 있는 해악의 원리(Principle of Permissible Harm)와 피터 바우만의 평등한 해악의 원리(Principle of Equal Harm)를 검토할 것이다. 프란시스 캠은 허용할 수 있는 해악의 원리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해악을 가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되는지를 규정하고자 한다. 피터 바우만은 역할 평등성과 위험 평등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각 트롤리 사례에서 해악의 분배가 얼마나 평등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위의 도덕적 허용성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두 이론 모두 트롤리 사례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며, 그 공통된 실패 원인은 특정한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려 했기 때문임을 지적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일원주의적인 접근은 트롤리 문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적 원리와 가치들의 충돌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은 물론 제대로 된 분석을 제공하지 못하기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원주의적 윤리인 덕 윤리가 적합한 답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2. 프랜시스 캠의 허용할 수 있는 해악의 원리와 비판

1) 프랜시스 캠의 허용할 수 있는 해악의 원리

먼저 검토할 것은 캠의 허용할 수 있는 해악의 원리(Principle of Permissible Harm, 이하 PPH)다. 캠은 쫓의 DDE 와 톰슨의 권리 기반 설명의 난점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캠은 DDE 에 대해서 언급한다. 우리는 세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a) 우리가 표준 사례에서 기차의 방향을 돌릴 때,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예견한다. (b) 우리가 이식 수술 사례에서 장기를 얻을 때,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을 의도한다. (c) 우리는 뚱뚱한 남자 사례에서 뚱뚱한 남자를 밀 때 그 사람의 참여와 그 사람의 죽음을 예견한다. DDE 에 따르면 (a)는 허용되지만 (b), (c)는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을 예측하기만 하고 의도하지 않은 경우는 (a)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캠은 이러한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5 명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 기차에 폭탄을 던지고, 그 폭탄 파편에 한 사람이 죽게 된다면 DDE 의 기준에 따르면 그때 우린 한 사람의 죽음을

의도하지도 않았고 예측만 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캠에 의하면, 폭탄을 던지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직관이다. 그리고 캠은 톰슨의 권리 기반 설명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한다. 톰슨의 권리 기반 설명에 따르면 표준 사례에서는 기차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허용된다. 그 이유는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내지 않았고, 그저 이미 존재하는 위협을 다수가 아닌 소수에게로 재분배하는 방식만 이용했을 뿐이기 때문에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캠은 톰슨의 설명이 허용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만약 기차가 한 사람을 향해 돌진하고 있고, 이 기차의 방향을 돌리면 5 명이 죽게 되지만 한 사람을 살리고 산사태로부터 20 명을 구할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열차의 방향을 돌리면 안 된다. 즉, 이미 존재하는 위협을 재분배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지만 그런데도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기에 권리 기반 설명은 허용할 수 있는 행위를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 그리고 또, 5 명이 있는 회전테이블을 향해 기차가 돌진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는 그 회전테이블을 돌리면 5 명을 구할 수 있고 대신 그 회전테이블을 돌림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해 1 명이 죽게 된다면 우리는 5 명을 구하면서 한 사람에게 새로운 위협을 가하게 된다. 하지만 캠은, 이 경우에는 회전테이블을 돌려도 된다고 주장하며 톰슨의 이론은 허용할 수 있는 행위의 기준으로서 필요조건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⁶

캠은 풋의 DDE 와 톰슨의 권리 기반 설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허용할 수 있는 해악의 원칙(PPH)을 제시한다. PPH 는 네 가지 기본 아이디어로 구성된다. 첫째, 행위가 더 큰 선을 직접 초래하고 그 결과 더 작은 악이 발생하는

⁶ Kamm(2007), p.24

경우, 그 행위는 허용된다. 둘째, 더 큰 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그 자체의 '비인과적 이면(noncausal flip side)'으로 더 작은 악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여기서 비인과적 이면이란, 선한 결과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그 결과가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위 자체가 더 큰 선의 실현과 동일시되며, 그 과정에서 더 작은 악이 함께 발생한다. 예를 들어, 트롤리 문제에서 트롤리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는 다섯 명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희생된다. 이때, 한 사람의 희생은 별도의 인과적 결과가 아니라 더 큰 선을 이루는 행위와 불가분하게 연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행위가 더 작은 악을 더 큰 선의 수단으로 요구할 때, 즉 더 작은 악을 수단으로 삼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넷째, 행위가 더 큰 선을 단순한 인과적 결과로 발생시키고 그 과정에서 더 작은 악을 부수적인 효과로 직접 초래하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⁷

PPH의 첫 번째 조건인 '행위가 더 큰 선을 직접적으로 야기하여 더 작은 악이 발생하는 경우 그 행위는 허용된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스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스 사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사례다.

가스 사례: 당신은 사고로 병원 내부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러 왔다. 한 방에는 5명의 환자가 있고, 다른 한 방에는 한 명의 환자가 있다. 5명의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있는 방에 특수한 가스를 살포해야 한다. 그런데 이 특수한 가스를 살포할 경우 5명은 탈출할 수 있지만, 5명이

⁷ Kamm(2007), p.24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그들의 호흡으로 인해 병원의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여
방 공기의 흐름이 멈추게 된다. 그로 인해 병균이 무고한 한 사람이 있는
방으로 이동해 한 사람을 죽이게 된다. 이 경우 가스를 살포할 것인가?

이 사례의 경우 가스를 살포하는 행위 자체는 한 사람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스를 살포해서 5명을 살리고, 그 5명이 호흡을 하게 된
결과 한 사람이 죽게 된다. 이 사례는 좋은 선을 발생시킨 결과가 악을 유발한
경우다. PPH 에 따르면 이것은 악의 발생이 허용되는 사례다.⁸

두 번째 조건인 '더 큰 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그 자체의 비인과적
이면으로 더 작은 악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는 허용된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인과적 이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비인과적 이면은 행위의
수단과 그로 인한 더 큰 선의 결과가 동일한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수단의 발생에 대한 설명이 곧 더 큰 선의 발생에 대한 설명과
동일하거나 불가분하게 연결된 상황이다. 예를 들어, 트롤리 문제에서 트롤리를 한
사람 쪽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다섯 명을 구출하는 것과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트롤리가 방향을 바꾸어 한 사람을 향해 움직이는 것은 다섯 명에게
가해지던 치명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다섯 명의 구출은 트롤리
전환의 인과적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와 불가분하게 연결된 결과이다. 따라서 다섯
명의 구출은 트롤리 전환의 비인과적 이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트롤리를
멈추기 위해 폭탄을 터뜨려 다섯 명을 구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상황에서

⁸ Kamm(2007), p.24

폭탄의 폭발은 트롤리를 멈추는 인과적 수단이며, 그 결과로 다섯 명이 구출된다. 그러나 폭탄의 폭발과 다섯 명의 구출은 별개의 인과적 단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폭탄의 폭발이 다섯 명의 구출과 동일한 사건으로 간주할 수 없다. 즉, 폭탄의 폭발은 트롤리를 멈추는 수단이고, 다섯 명의 구출은 그 인과적 결과이다. 이 경우, 다섯 명의 구출은 폭탄 폭발의 '비인과적 이면'이 아니므로, PPH의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폭탄의 폭발은 직접적으로 무고한 방관자의 죽음을 야기한다. 이는 더 큰 선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해악이지만, PPH의 네 번째 조건에 따르면, 행위가 더 큰 선을 단순한 인과적 결과로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더 작은 악을 부수적인 효과로 직접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폭탄을 던져서 트롤리를 멈추고 다섯 명을 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뚱뚱한 남자 사례에서는 뚱뚱한 남자의 죽음이 다섯 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는 더 작은 해악을 수단으로 삼아 더 큰 선을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PPH의 세 번째 조건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⁹

캠은 PPH에게 가장 난감한 사례는 루프 사례라고 주장한다. 루프 사례에서는 기차의 방향을 바꿔 한 명을 희생해야 5명이 살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명의 희생은 5명을 구하는 것과 인과적 연결성이 있다. 이 때문에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5명을 구하는 것의 비인과적 이면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캠은 루프 사례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PPH를 일부 수정한다. 캠은 더 큰 선 또는 그것을 비인과적 이면으로 갖는 수단이 더 작은 악을 생산하더라도, 그 더

⁹ Kamm(2007), p.25

작은 악이 더 큰 선을 유지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악은 더 큰 선을 지탱하지만, 더 큰 선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즉, 악이 더 큰 선을 지속시키더라도, 그것이 더 큰 선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 더 작은 악은 선의 인과적 하류에 있지 않다. 이는 그 악이 더 큰 선의 한 측면이거나, 더 큰 선을 비인과적 이면으로 갖는 수단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루프 사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며, 따라서 캠의 수정된 PPH 에 따르면 방향을 바꾸는 것이 허용된다.¹⁰

바로 이 점에서 PPH 는 기존 비결과주의 이론과 차별화된다. 기존의 비결과주의 이론들은 "하류 이론(downstream theory)"으로 분류되며, 악이 반드시 더 큰 선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할 때만 도덕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악은 선을 달성한 후 부수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선을 달성하기 위한 원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반면 PPH 는 "하류적 이론(downstreamish theory)"으로 기존의 이론들보다 유연하다. 이 이론에서는 악이 반드시 선의 결과가 아닐지라도, 선과 비인과적으로 연결되거나 선의 지속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때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선이 악을 직접적으로 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악이 선의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경우 허용된다.¹¹

캠이 루프 사례에서 한 명을 희생하는 것이 허용 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논증하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캠은 루프 사례가 이중의 위협이 발생하는 사례라고 주장한다. 첫 번째 위협은 열차가 원래대로 가면 5 명이 죽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지만, 방향을 바꾸면 다른 방향으로부터 5 명을

¹⁰ Kamm(2007), pp.25-26 / pp.153-154

¹¹ Kamm(2007), p.138

치는 두 번째 위협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매우 독특한 견해인데, 왜냐하면 열차의 방향을 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협을 우회시킨다고 해석되지,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캠은 루프 사례와 도덕적으로 동일하지만, 새로운 위협을 명백하게 포함하는 경우를 제시하여 의문을 해결하고자 한다. 수레 사례는 다음과 같다.

수레 사례: 기차가 5 명의 인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기차의 방향을 바꾸면 다른 한쪽 경로로 기차가 이동하고 기차는 그곳에서 멈춘다. 그런데 그 기차가 멈추는 곳에는 수레를 움직이는 버튼이 있고 기차의 방향을 돌려서 기차를 멈추면 그 버튼이 눌린다. 그 버튼이 눌리면 수레는 5 명을 향해 돌진해 5 명이 죽게 된다. 그런데 수레가 달리는 경로에 똥똥한 사람 한 명이 있다. 만약 행위자가 버튼을 눌러 기차를 멈추고 수레를 가동하면 그 수레는 똥똥한 남자를 치고 멈추게 될 것이다. 대신 똥똥한 한 남자는 죽게 된다.

수레 사례에서 수레는 분명 기존의 트롤리와는 다른 새로운 위협이다. 하지만, 이 수레 사례와 루프 사례는 도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 같다. 따라서 트롤리의 방향을 돌려도 여전히 5 명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을 새로운 위협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¹²

¹² Kamm(2007), pp.94-95

캠에 따르면, 한 방향에서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트롤리가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구조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원래 그들에게 다른 위협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우리의 개입과 무관하게 존재했던 모든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인과적 이면은, 우리가 트롤리의 방향을 바꿨을 때 다섯 명에게 새로운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들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사이드 트랙에 있던 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해악을 정당화할 수 있다. 우리는 트롤리를 원래의 경로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다섯 명에게 발생할 추가적인 결과를 배제했을 때 ‘더 큰 선의 구조적 등가물(structural equivalent of the greater good, 이하 구조적 등가물)’에 도달한다. 구조적 등가물이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 잠정적으로 달성한 더 큰 선의 상태를 의미한다. 즉, 트롤리의 방향을 바꾸어 다섯 명에게 가해지던 위협을 제거하면, 그들은 일시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이 상태는 아직 완전한 더 큰 선이 아니다. 왜냐하면 트롤리를 전환한 결과로 다섯 명에게 새로운 위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적 등가물은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한 잠정적인 단계이며, 이 상태가 지속되어 실제로 더 큰 선이 실현될 때 해악을 정당화할 수 있다. 구조적 등가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해악을 야기하는 행위를 할 때, 그 해악이 구조적 등가물을 유지하여 실제로 더 큰 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구조적 등가물이 유지되지 않거나, 해악이 단순히 더 큰 선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조적 등가물을 달성했다고 해서 우리가 트롤리의 방향을 바꾸고 한 명을 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다섯 명의 상태가 구조적 등가물에서 그대로 유지되어, 실제로 더 큰 선이 실현될 전망이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즉, 방향 전환의 정당성은 방향 전환의 추가적인 결과가 다섯 명의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방향 전환이 정당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구조적 등가물이 유지되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더 큰 선이 더 작은 악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¹³

더 큰 선의 구조적 등가물과 궁극적으로 해악을 정당화하는 더 큰 선 사이의 이러한 연속성은, 트롤리를 전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더 큰 선(이를 '더 큰 선 2'라고 부르자)이 트롤리 전환으로 인한 해악을 정당화하는 것을 배제한다. 예를 들어, 트롤리를 다섯 명으로부터 돌려 한 명이 치여 사망하게 되었지만, 그 결과 트롤리가 다시 다섯 명을 향해 돌아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트롤리가 다섯 명에게 돌아오는 길에 다른 트롤리가 세 명의 사람을 치는 것을 막는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 상황에서 트롤리를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직관을 설명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수단인 구조적 등가물이 유지되지 않아 더 큰 선이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트롤리를 전환하는 것은 (구조적 등가물과 그것을 지속시키는 무엇을 통해) 그 더 큰 선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 게다가, 이 경우 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방향 전환은 더 큰 선 2의 구조적 등가물을 비인과적 이면으로 가지는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 다른 더 큰 선 2(즉, 세 명의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를 야기하는 수단일 뿐이며, 그러한 수단은 더 큰 선을 야기하는 수단이 더 작은 악을 직접적으로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에 의해 배제된다. 해악을 직접적으로 야기하거나, 해악을 직접 야기하는

¹³ Kamm(2007), pp.154

수단과 비인과적으로 관련된 구조적 등가물은 궁극적으로 해악을 정당화하는 더 큰 선의 구조적 등가물이어야 한다.¹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조적 등가물이 유지됨으로써 더 큰 선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루프 사례와 비슷하지만, 옆길에 있는 한 사람을 치더라도 트롤리가 멈추지 않아 다시 다섯 사람을 치는 기적의 사례(Miracle Case)를 생각해 보자. 그러나 사이드 트랙 위를 지나가는 트롤리는 기적적으로 혈청을 생성하여 치여 죽은 다섯 명을 부활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적 등가물은 유지되지 않고 제거되지만, 그 제거의 부수적인 효과로 동일한 더 큰 선을 생산할 수 있다. 여기서 옆길에 있던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게 만드는 트롤리를 돌리는 행위는 더 큰 선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큰 선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경우 트롤리를 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¹⁵

정리하자면, 루프 사례에서 방향을 바꾼 트롤리가 한 사람을 치는 것은 더 큰 선의 구조적 등가물을 직접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다. 더 큰 선의 구조적 등가물은 한 사람과 충돌하기 전에 존재한다. 이는 트롤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행위가 다섯 명을 구하는 더 큰 선의 비인과적 이면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치는 것은 구조적 등가물의 범위 밖에 있으며, 다섯 명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취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위협을 제거한다. 즉, 우리의 행위(트롤리의 방향 전환)로 인해 생긴 다섯 명에 대한 위협(루프하는 트롤리)을 제거함으로써, 그 해악은 구조적 등가물을 더 큰 선 그 자체로 바꾼다. 이는 구조적 등가물에 긍정적인 것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¹⁴ Kamm(2007), pp.154-155

¹⁵ Kamm(2007), p.155

이루어진다. 즉, 한 사람의 희생은 트롤리가 다시 다섯 명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을 막아, 다섯 명의 안전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악은 선을 가져오거나 생산하기보다는 선의 취소를 막음으로써 더 큰 선을 유지한다. 더 큰 선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된다는 점은 선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에 관한 비결과주의적 특징이다. 즉, 더 큰 선을 유지하기 위해 인과적으로 필요한 악과 더 큰 선을 생산하기 위해 인과적으로 필요한 악을 도덕적으로 구분하는 특징이다. 따라서 루프 사례에서도 악이 더 큰 선의 하류에 있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악은 인과적으로 더 큰 선을 지탱하고, 트롤리를 다섯 명으로부터 돌리는 것은 비인과적으로 더 큰 선의 구조적 증가물을 산출한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인과관계는 선의 생산에 필요하거나 충분하지 않다. 이는 트롤리를 돌리는 행위가 비인과적으로 구조적 증가물을 산출하지만, 해악은 인과적으로 더 큰 선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지점에서 유지가 이루어지고, 다른 지점에서 비인과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루프 사례에서 트롤리를 돌리는 것을 허용하게 한다.¹⁶

2) 허용할 수 있는 해악의 원리 비판

PPH 가 루프 사례에서 기차의 방향을 바꿔 한 명을 희생해도 된다고 한 이유를 간략하게 되짚어보자. 캄은 루프 사례가 두 개의 위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위협은 기존의 방향으로 달리는 기차이며, 방향을 바꿈으로써 이

¹⁶ Kamm(2007), pp.155-156

위협은 사라진다. 그러나 루프 선로로 인해 두 번째 위협이 발생하여 기차가 다시 5 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그 한 사람을 그 선로 위에 있도록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한 명을 희생시켜 기차를 멈춤으로써 5 명이 생존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위협에서 벗어나 5 명이 잠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두 번째 위협으로 인해 그 선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구조적 등가물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한 명의 희생은 이 두 번째 위협을 제거하여 구조적 등가물을 실제로 더 큰 선(5 명의 완전한 생존)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해악(한 명의 희생)은 더 큰 선을 새로이 산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잠정적으로 얻은 큰 선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된다.

하지만 우리는 PPH 가 루프 사례를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루프 사례가 두 개의 위협이라는 캠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캠은 수레 사례가 루프 사례와 도덕적으로 동일하지만 분명하게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내는 사례라고 주장하며, 수레 사례가 두 개의 위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루프 사례도 두 개의 위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캠의 주장에 반대하여, 수레 사례도 사실 하나의 위협만을 포함하며, 단지 루프 사례보다 구성 요소가 더 많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직관적으로 뚱뚱한 남자 사례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뚱뚱한 남자를 밀든, 아니면 어떤 장치를 작동시켜 뚱뚱한 남자를 떨어트리든 우리가 직접적으로 뚱뚱한 남자가 선로로 떨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에 동의한다. 마찬가지로 루프 선로로 방향을 틀었을 때 5 명을 향해 다시 돌아오는 기차가 원래의 기차든 아니면 두 번째 기차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차의 방향을 바뀌도 다시 5 명에게 위협이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만약 기차의 개수나 경로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위협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뚱뚱한 남자 사례에서 뚱뚱한 남자를 떨어뜨리는 데 사용하는 장치가 복잡하고 그 과정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뚱뚱한 남자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우리 계획의 직접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더라도 반대할 방법이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우리의 행위가 특정한 상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만약 루프 사례가 기존의 위협과 동일한 위협을 포함하고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캠의 루프 사례에 대한 직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캠은 루프 선로에서 방향을 돌릴 때 최초의 위협은 사라지지만, 다시 기차가 5 명을 향해 돌아옴으로써 두 번째 위협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새로운 위협이 발생한 게 아니라면 루프 선로로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5 명에 대한 위협이 사라졌다고 주장할 수 없다. 방향을 바꾸든 바꾸지 않든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고, 선은 달성되지 않았다. 한 사람을 치는 것은 아직 달성하지 못한 5 명에 대한 위협 제거라는 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이는 PPH 의 조건 (iii), 더 좋은 선을 위한 수단으로써 그 적은 악을 필요한 경우에는 해악을 산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에 어긋난다.

그리고 캠의 루프 사례 분석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PPH 가 설득력이 있는 이론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볼 피터 바우만은 루프 사례에서 5 명과 1 명이 역할적으로 평등한 상황에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5 명이 죽는 과정에서 루프 선로에 있던 1 명은 인과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지만, 방향을 돌려 루프 선로 쪽으로 기차가 움직이면 1 명은 5 명을 향해 달려오는 기차를 막는 수단이 된다. 기차의 진로를 막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분명한 역할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는 루프 사례에서 1 명과 5 명이 역할적으로 평등한 상황에 있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구조적 동등성이 성립할 때는 이러한 불평등을 감수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더욱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캠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다.

셀리 케이건은 바로 이러한 의문점을 기반으로 캠의 PPH 를 비판적으로 논평한다. 케이건은 다양한 트롤리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직관을 모두 포착하고 수용하는 도덕적 원리 Q 에 대해 논의한다. 캠의 PPH 는 바로 이 Q 의 지위를 추구하는 이론이므로, Q 가 가진 문제는 바로 PPH 가 가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케이건은 Q 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과연 단일한 도덕적 직관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지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대체로 동일한 직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Q 가 호소하는 그 요소들이 도덕적으로 유의미한 것인가이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 케이건은 자신의 수업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적게는 50 퍼센트, 많게는 75 퍼센트가 캠의 직관과는 반대되는 직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철학적으로 잘 훈련받은 캠의 직관이 다른 일반 학생들의 직관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도 모든 경우에 있어서 대체로 캠의 직관이 참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주장할 수 있다.¹⁷

그리고 케이건은 PPH 가 Q 가 가지는 두 번째 문제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녀는 캠이 PPH 의 기본 개념, ‘다수를 구하는 것(더

¹⁷ Kagan(2016), pp.151-158

큰 선)과 동일한 사건(또는 그 비인과적 이면)의 결과로 일부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발생하는 더 작은 악은 허용될 수 있지만, 단지 다수를 구하기 위한 인과적 수단인 사건의 결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대체와 종속의 구분에 기반해 있다고 주장한다. 케이건은 캠이 한 사람을 희생하는 데 있어서 그 피해자들 간의 관계가 종속적인지 대체의 관계인지를 중시한다고 주장한다. 캠에게 있어 한 명을 희생하는 경우가 허용되는 것은 두 그룹의 잠재적 피해자들 간에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때, 일종의 '대체'가 이루어졌을 때다. 즉, 한 사람의 죽음이 선택되어 다수의 죽음을 대체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표준적인 트롤리 사례에서는 단순한 대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트롤리를 돌리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뚱뚱한 남자 사례에서는 뚱뚱한 남자가 다수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종속이 있으므로 관련 행위가 금지된다. 캠의 인과성에 대한 호소는 바로 이 대체와 종속의 도덕적 구분의 유의미성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다.¹⁸

그러나 케이건은 여전히 대체와 종속의 구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캠이 두 트롤리 사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두 트롤리 사례란, 방관자가 아무것도 안 하면 5 명이 기차에 치여 죽게 될 상황이 있고, 이 상황에서 방관자가 5 명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가 아닌 별개의 기차를 움직이면 그 기차가 5 명을 향해 달려가던 기차의 방향을 바꾸어 5 명이 살게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기차를 가동하면 두 번째 기차의 선로 위에 있던 한 사람이 죽게 되는 상황이다. 캠은, 이 경우는 종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캠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 경우 하나를 죽이는

¹⁸ Kagan(2016), pp.158-159

원인, 두 번째 기차의 가동이 다섯을 구하는 단순한 인과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5 명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 더 작은 악을 직접적으로 비인과적 이면으로 갖기에 허용되지 않고, 종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кей건은 이 사례가 특별히 도덕적인 불쾌감을 제공하는 종속의 사례에 해당하는지에 의문을 품는다. 물론 캠은, 이 사례가 종속에 해당하는 이유와 기준을 제공하지만, 그것이 정말 도덕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유의미한 차이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캠의 설명은 불충분하다는 것이 кей건의 결론이다.¹⁹

캠은 кей건의 비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먼저 캠은 직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자신의 직관을 설명하는 원칙이 도덕적으로 유의미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캠은 다른 직관을 가진 상대방이 특정한 이유를 실수로 너무 중요하게 여기거나, 특정한 이유를 고려하지 못한 경우에는 굳이 도덕적으로 유의미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кей건이 제시하는 두 번째 비판, 두 트롤리 사례에서 대체와 종속의 구분이 유의미한 도덕적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 같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수한다. 캠에 따르면 두 트롤리 사례는 폭탄 사례와 유사하다. 우리는 되도록 5 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직접적으로 해칠 수단은 고르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PPH 는 5 명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 직접적으로 그 이면 효과로서 한 명을 죽이는 것과 인과관계를 가진다면 그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두 번째 트롤리나 폭탄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¹⁹ Kagan(2016), pp.159-161

수단의 피해자는 그 자체로는 5 명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종속된 상황이라고 해석했다고 주장한다.²⁰

그러나 캬의 답변은 크게 설득력이 없다. 첫째, 직관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자신과 다른 직관을 가진 사람이 특정 이유를 과도하게 중요시하거나, 어떤 이유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하지만 캬와 다른 직관을 가진 사람이 캬보다 특정 이유에 대한 이해를 더 제대로 가지지 못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다. 물론 캬가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캬의 답변이 성공하려면 캬의 직관적 판단은 그 반대자들보다 더 많은 숙고와 고려가 이루어진 우수한 판단이라는 가정이 참이어야 하는 것 같다. 따라서 캬의 답변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케이건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비판에 대한 답변도 만족스럽지 않다. 케이건이 두 트롤리 사례가 종속과 대체의 구분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유는 캬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여겨서가 아니다. 케이건이 의문을 품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두 트롤리 사례에서 종속과 대체의 구분에서 비롯된 도덕적 거부감을 느끼는지다. 캬는 폭탄 사례와 두 트롤리 사례에서 우리가 한 명을 희생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캬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한 명을 희생하는 것을 거부하는 직관이 있는지, 정말 그 정도로 강한 도덕적 불편함을 느끼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우리는 분명 똥똥한 남자 사례에서 한 명을 다섯 명을 구하기 위한 종속적인 존재로 다루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²⁰ Kamm(2016), pp.151-165

있다. 하지만 폭탄 사례나 두 트롤리 사례에서도 뚱뚱한 남자 사례에서 느끼는 만큼 결정적인 도덕적 거부감을 느끼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кей건은 캠과 동일한 직관을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캠은 두 트롤리 사례가 폭탄 사례와 구조가 비슷하고, 폭탄 사례에서 우리가 같은 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트롤리 사례에 대해서도 같은 직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방식의 답변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답변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폭탄 사례에 대해서도 다른 직관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 설득할 것인가? 우리는 결국 다시 첫 번째 문제로 되돌아가 다른 직관을 가진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할지의 문제를 논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한 캠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PPH 는 캠이 가진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직관을 잘 설명해 주고 정합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 이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사례에 대한 분석이나 그 기준의 도덕적 유의미성의 제시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고 PPH 가 실패한 원인은 кей건이 지적한 것처럼 모든 트롤리 문제 사례에 지배적인 직관이 존재하고, 그 직관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도덕 원칙이 존재하며 그 도덕 원칙을 모두에게 도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믿기 어려운 전제들에 기반해 성공시키기 어려운 기획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3. 피터 바우만의 평등한 해악의 원리와 비판

1) 피터 바우만의 평등한 해악의 원리

다음으로 검토해 볼 비결과주의 이론은 피터 바우만의 평등주의적 접근이다. 바우만은 트롤리 문제에 대한 기존의 해결책들이 불만족스럽고, 자신이 더 만족스러운 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¹ 그는 자신의 평등주의적 접근을 설명하기 위해 표준 트롤리 사례와 이식 수술 사례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는 두 가지 종류의 평등성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 차이를 설명한다. 먼저 첫 번째 기준은 역할-평등성(role-equality)이다. 역할-평등성이란 특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간의 역할 교환이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성립하는 평등성이다. 예를 들어 이식 수술 사례에서 5명은 장기부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한 사람과 다섯 명의 사람 간의 역할 변경이 불가능하다. 반면, 표준 트롤리 사례에서 메인 트랙과 사이드 트랙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6명 모두 언제든지 역할을 교환할 수 있는 평등한 위치에 있다. 또한, 이들은 기차가 돌진함으로써 각자의 입장이 정해지며, 시나리오 외의 고유한 속성에서는 차이가 없다. 반면 이식수술 사례에서는 그 시나리오 이전에도 각 사람들의 속성, 즉 건강함과 건강하지 않음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표준 트롤리 사례에서는 6명 간의 역할-평등성이 존재하지만 이식 수술 사례에서는 그렇지 않다.²²

바우만이 제시하는 두 번째 평등성은 위험-평등성(risk-equality)이다. 이 위험-평등성은 각 선택 이후 발생하는 각 상황의 변화에 따른 동등성을 계산하여

²¹ Baumann(2022), p.1739 / 바우만은 다른 해결책들이 불만족스럽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나 논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우만이 자신의 이론의 강점으로 제시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추측하건대, 기존의 해결책들은 트롤리 사례를 분석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들이 지지하기 어려운 기준을 제시하고,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도덕적 직관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론을 전개하려고 하다 보니 이론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서 불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²² Baumann(2022), pp.1739-1740

평가된다. 가령 표준 트롤리 사례에서 기차가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두면 5 명의 상황은 나빠지고 1 명의 상황은 변화가 없다. 반면 기차의 방향을 바꾸면 1 명의 상황이 나빠지고 5 명의 상황은 변화가 없다. 반면 이식 수술 사례에서는 건강한 사람의 장기를 이용해 5 명을 살릴 경우, 한 사람은 나빠지고 5 명은 나아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5 명의 사람과 1 명의 사람 모두 변화 없이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한다. 즉, 선택에 따라 손익이 달라진다. 이를 다음과 같이 표로 표현할 수 있다.

	표준 트롤리 사례	이식 수술 사례
1 명을 희생한다	1 명-나빠짐 / 5 명-그대로	1 명-나빠짐 / 5 명-좋아짐
1 명을 희생하지 않는다	1 명-그대로 / 5 명-나빠짐	1 명-그대로 / 5 명-그대로

표 1

표준 트롤리 사례에서는 위기의 배분이 평등하고 대칭적이기 때문에 1 명을 희생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반면 이식 수술 사례에서 5 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 명을 희생하는 것은 위험 평등성을 평가해 봤을 때 비대칭적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 명을 희생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²³

²³ Baumann(2022), pp.1740-1741

두 가지 평등성 개념을 이용해 바우만은 평등한 해악의 원리(Principle of Equal Harm, 이하 PEH)를 제시한다. PEH의 정식은 다음과 같다.

PEH: 소수의 사람에게 (특정 유형과 양의) 해를 끼칠 수 있거나 더 많은 사람에게 유사한 해를 예방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같은 종류의 해를 끼칠 수 있거나 더 적은 사람들에게 유사한 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역할-평등성과 위험-평등성이 모두 존재할 때는 허용되고, 역할-평등성과 위험-평등성이 모두 존재하지 않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 가지 형태의 평등성만 있고 다른 형태는 없는 경우는 경계선상에 있는 사례다. 이 정식은 다른 조건이 같다는 조건에서 성립한다.

이 기준에 따라 우리는 표준 트롤리 사례에서는 방향 전환이 허용되고 이식 수술 사례에서는 한 명을 희생해서 수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다.²⁴

바우만은 자신의 기준에서 똥똥한 남자 사례와 루프 사례 모두를 경계선 사례로 분류한다. 이는 두 사례 모두 역할-평등성은 성립하지 않지만, 위험-평등성은 성립하기 때문이다. 똥똥한 남자 사례에서 5명은 선로 위에 있고, 1명은 다리 위에 있어 역할-평등성이 없다. 루프 사례에서도 5명은 1명을 구하는 데 수단적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1명은 5명을 구하는 수단이 되므로 역할-평등성이 없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 위험-평등성은 성립한다. 희생당한 측은 상황이 나빠지고, 트롤리를

²⁴ Baumann(2022), pp.1741-1742

피한 측은 상태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바우만에 따르면 PEH 가 사실일 경우 이 PEH 외에 이 상황에 개입할 다른 도덕적 원리가 없으므로 두 경우에서 모두 우리는 어느 쪽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인지 선택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바우만은 사람들이 뚱뚱한 남자 사례보다 루프 사례에서 방향 전환을 더 선호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두 사례 사이에 유의미한 도덕적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남자를 밀든, 함정의 문을 여는 버튼을 눌러 떨어뜨리든, 루프 선로에 있는 사람 쪽으로 방향을 틀었든, 회전 테이블을 돌려 한 사람을 5 명 대신 치이게 만들든 역할-평등성과 위험-평등성의 관점에서는 모두 같은 사례들이고, 유의미한 도덕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PEH 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한쪽 평등성만 성립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는 이 사례들에서 선택을 주저한다는 점에서 이 사례들은 경계선 사례들이다.²⁵

바우만은 경계선 사례에서 어떤 평등성에 더 가중치를 둘 것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PEH 가 매력적인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PEH 는 트롤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우리가 평등이라는 가치에 동의하는 한 PEH 가 제시하는 평등의 관점은 다양한 사례에 대한 우리의 규범적 판단에 좋은 정당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우만은 자신의 PEH 가 다른 이론들보다 더 나은 이론이라고 주장한다.²⁶

2) 평등한 해악의 원리 비판

²⁵ Baumann(2022), pp.1745-1746

²⁶ Baumann(2022), pp.1748

바우만의 PEH 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먼저, PEH 에 따르면 뚱뚱한 남자 사례와 루프 사례 사이에는 유의미한 도덕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뚱뚱한 남자 사례에서 우리는 선로 위에 있지 않은 남자를 선로 위에 있게 하려고 떨어뜨리는 적극적 시도를 하지만, 루프 사례에서는 이미 선로 위에 있는 한 사람을 기차 방향만 바꾸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상황이 매우 다르고, 그러므로 도덕적 직관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바우만은 회전 테이블 사례를 제시하며 방어한다. 우리는 회전 테이블 사례에서 테이블을 돌려 5 명을 살리고 한 명을 죽이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회전 테이블 사례에서 우리가 테이블을 돌리면 한 사람의 위치를 바꾸게 된다. 즉, 회전 테이블 사례는 한 명의 위치를 바꾸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뚱뚱한 남자 사례와 본질적으로 같다. 그런데 캠과 같은 학자들은 회전 테이블 사례에서는 한 사람을 희생해도 된다는 직관을 가진 반면 뚱뚱한 남자 사례에서는 한 사람을 희생하면 안 된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도덕적 직관은 모순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우만은 도덕적 직관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도덕 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덕적 직관에 따라 뚱뚱한 남자 사례에서는 뚱뚱한 남자를 다리에서 선로로 떨어뜨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루프 사례에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²⁷

²⁷ Baumann(2022), p.1746

하지만 회전 테이블 사례와 뚱뚱한 남자 사례는 다른 사례다. 회전 테이블 사례는 5 명과 1 명이 같은 회전 테이블에 있는 상황이다. 비록 위치를 바꾸는 것이 1 명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기도 하지만 같은 테이블에 있는 5 명을 구하기 위해 방향을 돌리는 일의 이면 효과이기도 하다. 표준 트롤리 사례에서 5 명을 구하기 위해 열차의 방향을 돌리는 데 있어 1 명이 5 명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듯, 회전 테이블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5 명을 살리기 위해 테이블을 돌리는 데 있어 1 명은 인과적으로 5 명을 구하는 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 물론 테이블로 위치를 옮긴다는 점에서 기차 사례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직관적으로 이 사례는 뚱뚱한 남자 사례보다는 표준 트롤리 사례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뚱뚱한 남자 사례와 루프 사례가 유사한 사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회전 테이블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두 번째로 PEH 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은 경계선에 있는 사례들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바우만은 PEH 가 참일 경우, 다른 원리가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일원적인 도덕 원리의 제시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경계선 사례에서 어느 선택이 더 나은지 판단할 수 없다고 남겨두는 것은 그의 도덕 이론의 한계를 드러낸다. 설사 PEH 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평등성이라는 개념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평등성은 선택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한 가지 고려 사항이 될 수는 있어도 유일한 판단 기준일 수는 없다.

PEH 의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PEH 는 선택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고려 사항으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트롤리 문제와 같은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등성

이외의 다른 도덕적 가치나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PEH는 트롤리 문제의 일부 측면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지만, 도덕적 판단의 완전한 기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더 풍부하고 복합적인 도덕 이론을 모색하는 것이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 이후 절에서는 캠의 PPH와 바우만의 PEH 모두 일원주의적 윤리 이론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을 논의하겠다.

4. 비결과주의 기획 비판: 일원주의적 윤리 이론의 한계

이 논문은 캠의 PPH와 바우만의 PEH가 트롤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이론 모두 일원주의적 원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논문이 특별히 이 두 이론만을 겨냥하여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PPH와 PEH는 비결과주의적 접근들 중에서도 비교적 정교하고 면밀하게 다듬어진 해법으로 꼽힌다. 그러나 그런 이론들조차 트롤리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널리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은, 일원주의적 관점에서 이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시사한다. 즉, 단일한 도덕 원칙이나 기준에 모든 도덕적 상황을 귀속시키려는 시도가 트롤리 문제처럼 복잡하고 딜레마적 성격이 짙은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다. 나아가 캠과 바우만의 이론보다 덜 정교하거나, 그보다도 지지받지 못하는 비결과주의 이론들은 당연히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힌다. 결국, 이 두 상대적으로 성공적이고 정합적인 이론들조차도 트롤리 문제를 만족스럽게 풀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은, 단지 PPH나 PEH만의 결함을 넘어, 전체 비결과주의 진영

내에서 일원주의적 접근이 구조적으로 한계를 지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윤리학에서 일원주의적 원칙에 의존하는 해결책이 광범위한 합의나 인정 가능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그로 인해 다원주의적 접근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된다. 다음의 인용을 보라.

허용적 우회 가설이 톰슨의 모든 사례에서 우리의 직관과 일치하더라도, 우리는 이 가설(또는 이와 유사한 원칙)이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경우가 있으리라는 것을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다. 허용적 우회 가설은 분명히 유일한 도덕 원칙도 아니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도덕 원칙도 아니므로, 우리는 더 우선순위가 높은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물론 톰슨은 왜 외과의사가 이식수술을 진행하지 않는지, 왜 공정한 콘테스트의 심사위원이 콘테스트 규칙에 따라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수여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허용적 전환 가설 이외의 어떤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허용적 우회 가설'이 다른 모든 도덕 원칙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믿을 수 없는 입장을 옹호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악이 매우 많은 사람들을 재앙으로 위협하는 경우,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악을 소수에게 돌리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항상 허용적 전환 가설에 부합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허용적 전환 가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가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의 직관이 신뢰할 만하다면 항상 허용적 우회 가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겉으로 보기에 상충하는 직관을 조정하기 위해 그러한 가설을 확인하는 것이 흥미롭고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직관이 이런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되며, (톰슨이 뜻에게 그랬듯) 직관과 충돌한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원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Postow(1989), 535-536, 괄호 내용은 본고 필자가 내용상 이해를 위해 추가함)

포스토우는 톰슨의 허용적 전환 가설을 비판하면서 톰슨이 제시하는 원칙이 유일하거나 최우선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고, 다양한 도덕적 원칙이 존재할 것임을 톰슨 본인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도덕적 직관과 충돌한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원칙을 거부하는 것도 옳바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비판은 톰슨이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기 전의 입장인 권리 기반 설명에 대해 제기된 비판이지만, 이 비판은 다른 비결과주의 이론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이다. 우리는 트롤리 문제를 다룸에 있어 PPH 가 제시하는 기준들이나 평등성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하거나 최우선 원칙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포스토우가 언급했듯, 그 원칙들이 다른 상황이나 맥락에서도 같은 우선순위와 효력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트롤리 사례들에 한정해 자신들의 원칙이 참인 도덕적 직관을 잘 설명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되는 원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할 경우, 다른 도덕적 직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이론을 설득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캠과 포스토우만 해도 트롤리 문제에 대한 분명한 직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캠은 표준 사례와 루프 사례에서는 한 명을 희생하는 것이 허용되고 뚱뚱한 남자 사례에서는 한 명을 희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포스토우는 표준 사례의 경우 한 명을 희생하는 것이 허용되나, 루프 사례와 뚱뚱한 남자 사례는 역할-평등성은 어긋나지만, 위험-평등성은 위배하지 않는 경계선 사례로 분류한다. 그리고 포스토우는 이 두 사례가 도덕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도덕적 직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다른 도덕적 직관을 참이라고 전제하는 두

이론(혹은 원칙)이 충돌할 때 우리는 도덕적 직관에 호소해서 어떤 원칙이 더 우선시되는 원칙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이론들이 실패한 원인이 이 이론들이 기초로 삼는 도덕적 원칙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쏫이 전제하는 칸트의 아이디어, 사람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는 도덕적 원리의 객관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바우만이 제시한 평등주의의 원칙, 위험을 재분배하거나 역할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평등성이 성립해야 하고, 그 평등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다. 캠이 제시한 PPH의 원칙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비결과주의 이론가들이 근거로 삼는 도덕적 원칙들의 객관성에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이론을 비판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트롤리 문제에서는 이 도덕적 원칙들이 충돌하며 그것을 중재해야 하는데 비결과주의자들은 충돌하는 원칙 중 일부를 무시하거나 특별한 근거 없이 특정한 도덕적 원칙이 가장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례 분석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즉, 우리는 비결과주의 이론이 실패한 공통의 원인이 일원적인 도덕 이론을 구성하고자 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우리는 삶에 다양한 종류의 좋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좋은 것들을 모두 추구할 수 없을 때 한 가지를 선택할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윤리 이론을 구성할 때도 한 가지 좋음만 고려하는 도덕적 원칙이나 윤리적 이론을 가장 좋은 이론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에 관한 다음의 인용을 보라.

따라서 좋음의 다원주의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행위의 다원주의도 존재한다. 올바르게 행위를 한다는 것은 좋음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잠재적인 좋음보다 더 단일할 수 없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좋음이 서로 비교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경우, 올바른 행동의 대안적인 과정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좋음을 모든 사람이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고, 다른 좋음을 선택한 다른 사람들을 타락하고 악하다고 정죄할 수도 없다. (Lamprecht(1920), 569)

램프레히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음들 간의 객관적인 위계를 설정할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특정한 행위나 특정한 좋음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론을 가장 좋은 이론이라고 평가할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올바른 행위라는 것은 결국 좋음을 추구하는 것이고, 추구해야 할 좋음이 다원적이라면 단일한 좋음을 추구하는 원칙이나 이론을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기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덕을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선택한 덕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도 없다. 따라서 트롤리 문제에서 한 가지 기준, 한 가지 좋음을 기준으로 한 가지 선택지를 정당화하고 다른 선택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일원주의 이론의 기획은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에 이 논문은 일원주의적 도덕 이론을 구성하여 트롤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포기하고 다원적인 도덕 이론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그 다원주의적 이론으로 덕 윤리를 제안한다. 우리가 일원주의적 윤리 이론을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먼저 우리가 왜 특정한 직관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원주의적 이론은 그 특정한 직관이

반드시 참이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일원주의는 특정한 답이 참이라고 전제하고 그 전제하에서 자신들의 일원주의적 이론을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하지만 다원주의는 그런 의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원주의는 사람들이 트롤리 문제들에 대해 가지는 도덕적 직관의 차이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반드시 그 직관이 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정당화의 의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이중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다원주의적 원리를 받아들이는 윤리학 이론으로 덕 윤리를 제시할 것이다.

제3장 트롤리 문제의 해소: 덕 윤리와 침묵주의

1. 덕 윤리 소개

1) 도입

이 논문은 일원주의적 이론이 트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원주의적 이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다원주의적 이론으로 덕 윤리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왜 여러 다원주의 이론 중 덕 윤리와 침묵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는지, 덕 윤리가 왜 다원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원주의적 접근법이 정말로 일원주의적 접근법보다 나은지 설명해야 한다. 덕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덕'을 설명하고, 그 특성으로 인해 덕 윤리가 다원주의적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덕 윤리의 다원주의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려는 덕 윤리학자 반 질의 논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제안하는 대안인 '침묵주의적 덕 윤리'를 소개할 것이다. '침묵주의적 덕 윤리'는 도덕적 원칙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윤리학이 하나의 선택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이 입장을 통해, 트롤리 문제는 특정한 선택지를 정당화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이고 객관적인 도덕적 원칙들과 덕목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의 주장을 유일한 정답으로 정당화하려는 기존의 이론들이 달성할 수 없는 과제를 스스로 부여하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논문은 트롤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 딜레마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객관성, 정합성, 일관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개개인의 선택과 결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²⁸ 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 해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여기는 기존 이론들의 잘못된 전제를 해소하는 방식이다.

2) 덕 윤리와 침묵주의를 대안으로 채택한 이유

이 논문이 여러 다원주의적 이론 중 덕 윤리를 채택하고, 나아가 침묵주의와 결합한 ‘침묵주의적 덕 윤리’를 대안으로 제안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덕 윤리가 규범적 성격을 지닌 다원주의적 이론이라는 점 때문이다. 다원주의적 접근은 다양한 도덕적 가치와 덕목이 공존하고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덕 윤리는 이러한 다원주의를 규범적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즉, 덕 윤리는 단순히 복수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성품, 맥락, 상황에 따라 여러 덕목이 유연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판단의 실제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윤리학이 단순한 메타윤리적 논의나 가치 다원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 평가에까지 활용 가능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²⁸ 이 논문은 일관적으로 객관성/정합성/일관성에 벗어나지 않는 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결국 선택은 개인의 결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논지를 유지한다. 이 부분에 대해 상대주의적/주관주의적 함축을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객관적 덕들이 충돌하는 상황에 한해서는 철학이 특정 선택지를 정당화할 수 없고, 결국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최종적인 선택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것을 결단주의와 같은 특정한 철학적 맥락에서 이해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둘째, 덕 윤리는 다른 다원주의 이론들과 비교했을 때 ‘인격’과 ‘실천적 지혜’를 중심에 둬으로써 복잡한 도덕적 상황을 더 자연스럽게 포착한다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로스(W.D. Ross)의 의무 다원주의²⁹와 같은 입장도 다양한 가치나 의무를 인정하지만, 행위자가 실제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비교적 추상적이거나 원칙 중심의 접근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에 비해 덕 윤리는 행위자 개개인의 덕성, 경험적 숙고, 감정 조화, 상황 적합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딜레마 상황에서 특정한 원칙이 아닌 다양한 덕목들이 상호 충돌하는 복잡한 실제 삶의 도덕적 현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다. 이로써 덕 윤리는 일상적 판단의 맥락과 경험적 차원을 존중하며, 개별 사례마다 상황에 적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론적 유연성을 확보한다.

셋째, 덕 윤리는 침묵주의(quietism)와 결합함으로써 다원주의적 강점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다른 다원주의 이론들도 복수의 가치나 원칙이 존재함을 인정하지만, 어떤 가치가 우선하는지 해명을 요구받을 경우 결국 일원주의적 압박 속에 놓이기 쉽다. 그러나 침묵주의는 “철학이 모든 딜레마 상황에서 정답을

²⁹ Ross(2002) 참고/ W. D. 로스는 도덕적 판단을 하나의 최고 원칙이나 결과로 환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복수의 기초적 의무(prima facie duties)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기초적 의무들은 약속 준수, 해약금지, 감사, 정의 실현, 선행 등 여러 덕목적 고려를 담고 있으며, 상황마다 서로 충돌할 수 있다. 로스는 이러한 의무들 중 어떤 것이 실제 상황에서 우선하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를 통해 일상 도덕 경험을 더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다. 즉, 로스는 단일한 절대적 원칙 대신, 복수의 조건적 의무를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입장을 옹호했다. 비록 로스의 의무 다원주의가 일원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가치와 의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적 특성을 공유하지만, 여전히 로스는 각 상황에서 어떤 의무가 우선하는지를 도출하려는 시도를 지속한다. 즉, 로스의 이론은 여전히 특정 상황에서 하나의 실제적 의무를 확정하는 결론에 도달하려 한다. 반면 본 논문은 침묵주의적 덕 윤리를 제안하면서, 철학이 딜레마적 상황에서 정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전제 자체를 거부한다. 로스의 접근은 다원주의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실제적 의무’를 확정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기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철학적 침묵과 딜레마 수용이라는 전략과는 어긋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로스의 접근을 대신해 덕 윤리와 침묵주의를 결합한 대안을 선택한다.

내놓아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거부함으로써, 덕 윤리가 가지는 상황적·맥락적 판단과 행위자의 덕성을 중심에 놓을 수 있도록 돕는다.

다시 말해, 침묵주의를 수용하면, 철학이 특정 덕목이나 원칙을 절대적 기준으로 내세우지 않고도 딜레마의 복잡성과 긴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덕 윤리는 이미 다양한 덕목과 실천적 지혜를 강조하는 만큼, 침묵주의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원칙을 강제하지 않는 ‘해소’의 방향으로 전환하기가 한층 수월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여러 다원주의 이론 중에서 덕 윤리를 채택하고, 침묵주의와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정리하자면, 여러 다원주의 이론들 중 덕 윤리가 채택된 이유는 덕 윤리가 단순히 복수의 가치나 원칙을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위자의 품성, 경험, 맥락적 판단을 중심에 두는 규범적 이론으로서 실제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더 풍부하고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침묵주의와 결합함으로써 덕 윤리가 단 하나의 절대적 우선 원칙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트롤리 문제와 같은 해결 불가능한 딜레마 앞에서 철학이 정답 강요가 아닌 딜레마 수용의 태도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일원주의적 접근이 달성하기 어려운 다원주의적 유연성과 현실성을 덕 윤리를 통해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3) 덕 윤리의 특징

덕 윤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덕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선택과 관련된 성품 상태로서, 우리에게 상대적인 중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중용은 이성과 실천적 지혜를 지닌 사람이 정하는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³⁰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특징은 도덕적 문제를 단일한 절대 원리나 산술적 계산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행위자와 상황을 고려하는 실천적 지혜(phronesis)와 덕(virtue)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위 구절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중용”으로 정의하는데, 이 중용은 획일적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자의 성품, 맥락, 이성적 판단에 의해 달라진다. 즉 덕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형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실제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성과 경험을 통해 찾아내야 하는 유연한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법은 다양한 가치와 덕목을 인정하고, 개별적 상황에 따라 최선의 행위를 숙고하는 다원주의적 윤리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덕 윤리를 더욱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덕 윤리에 대해 제기되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 번째로, "어떤 특성들이 덕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위에서 용기나 이타심 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것보다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덕에 해당하는 특성인지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덕 윤리가 기본 개념으로 삼는 덕이 의무론이나 결과론에 비해 다원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일원주의의 문제에 빠지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두 번째로 대답해야 할 질문은 "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실천적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이다. 이후 자세히 다루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덕이 있는 사람은 실천적 지혜를

³⁰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Book II, Chapter 6 (1106b36–1107a2).

가지고 덕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실천적 지혜란 무엇이고, 그것이 덕들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에 대한 해명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 해명을 통해 덕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히 원칙을 알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습득된 기술과 같은 것으로 도덕적 원칙에 대한 앎이 곧바로 덕스러운 행위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덕 윤리는 올바른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이다. 비록 덕 윤리가 옳음과 그름이라는 개념 대신 미덕과 악덕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위에서 언급하기는 했지만, 덕 윤리는 여전히 규범적 이론으로서 무엇이 권장할 만한 행위이고 무엇이 권장하지 않을 만한 행위인지를 평가할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덕 윤리는 실천적 지혜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해야 할지 판단하는 능력을 중시한다. 이는 덕 윤리가 도덕 원칙 자체의 객관성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원칙을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도덕적 원칙 그 자체에 따라 나올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덕 윤리의 특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덕 윤리가 도덕적 원리나 원칙이 개별 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없다는 도덕적 특수주의의 입장과 공명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이처럼 덕 윤리는 덕의 개념과 실천적 지혜를 중심으로 한 윤리 이론으로, 의무론이나 결과론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 다음으로, 덕 윤리에 제기되는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함으로써 덕 윤리의 특징과 일원주의적 이론과의 차이를 더욱 명확히 살펴보겠다.³¹

³¹ 덕 윤리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어떤 버전의 덕 윤리를 따르는 지에 따라 우리가 대답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상이하게 달라진다. 그 다양한 버전을 모두 다루며 어떤 버전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를 논하는 것은 현재 논의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각각 이 논문에서 받아들이는 특정한 버전의 대답만 다룰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덕 윤리에 대한 다원주의적 해석, 그리고 행동 지침을 제공할 수 없다는 특수주의적 견해에 입각한 덕 윤리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버전의 덕 윤리에서는 덕스러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충실한 덕 윤리, 즉 덕 윤리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첫 번째 질문: 덕이란 무엇인가?

먼저 덕 윤리에 제기되는 첫 번째 질문인 “덕이란 무엇인가?”에 답하도록 하겠다. 덕 윤리학자 크리스틴 스완튼은 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덕은 좋은 성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분야 또는 분야들에 속한 항목(items)에 대해 탁월하거나 충분히 좋은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받아들이는 성향을 말한다. (Swanton(2003), 19)

스완튼에 따르면 덕은 세계의 요구에 잘 반응하는 성향이다. 그리고 그 세계의 요구에는 다양한 분야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덕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스완튼의 이론을 따르면, 덕은 단순히 선악의 개념이나 고정된 가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스완튼에 따르면, 덕은 특정한 가치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는 성향을 말한다. 그는 덕을 가치 중심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덕은 특정한 가치나 선악의 결과를 넘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본다.

스완튼은 먼저 비-덕 기반 가치 논제(Thesis of Non-Aretaic Value)를 통해 덕성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견해를 비판한다. 이 논제는 덕이 비-덕 기반 가치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예를 들어, 덕이란 선하거나

유익한 결과에 기여하는 행동이거나 악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완튼은 이러한 접근이 덕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덕이 특정한 선이나 악에 대한 반응으로만 정의될 수 없으며, 덕은 오히려 상황과 맥락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끌어내는 성향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관계에서 덕성은 그 친구의 가치나 우정을 통해 평가되지 않고, 그 관계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스완튼은 덕이란 선한 결과나 비-덕 기반 가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덕성을 '적절한 방식으로 다루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덕성은 단순히 좋은 결과나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친구의 우정이라는 관계에서 덕성은 단순히 우정을 유지하는 데서 오는 가치가 아니라, 그 우정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다루는 것이 덕의 본질이라는 것이다.³²

스완튼은 또한 가치 중심 일원론(Value-Centered Monism)을 반박하면서 덕의 특성을 설명한다. 가치 중심 일원론은 도덕적 반응의 적절함이 전적으로 대상에 내재한 가치의 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덕성은 가치가 높은 것에 더 많이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스완튼은 덕성이 단순히 가치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며, 상황과 관계가 도덕적 응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덕성이란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반응만이 아니라, 그 대상과의 유대 관계, 그 대상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슬픔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슬퍼하는 대상의 가치에 의해

³² Swanton (2003), pp.35-38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대상과 슬퍼하는 사람 사이의 유대 관계가 슬픔의 적절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스완튼은 덕성은 단순히 대상의 가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즉, 덕은 대상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그 대상을 어떻게 적절히 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스완튼의 덕성 이론에서 중요한 또 다른 특성은 덕이 상황적 적합성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덕성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칙이 아니라, 각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다르게 발현된다. 이는 덕성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는 성향임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돈을 다루는 데 있어 덕성은 무조건 절약하거나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절약하고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능력이다. 스완튼은 덕성의 이런 유연성이 덕의 핵심 특성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³³

결론적으로, 스완튼의 덕성 이론에 따르면 덕이란 단순한 가치를 추구하거나 결과를 최적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과 맥락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도덕적 성향이다. 덕은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이 직면하는 복잡한 도덕적 요구에 맞추어 적절하게 행동하고 감정을 조정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우리는 덕이 선함이나 선한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가치라는 것, 그리고 다양한 가치들의 목록이 있는 것은 물론 그 가치의 정도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덕에 대한 다원주의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스완튼의 덕 이론은 덕이 단일한 가치나 결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성향임을 보여준다. 이는 덕

³³ Swanton (2003), pp.41-46

윤리가 다원주의적 성격을 지님을 확인시켜 준다. 다음으로, 덕 윤리에서 '실천적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다.

5) 두 번째 질문: 실천적 지혜란 무엇인가?

덕 윤리에 제기되는 두 번째 질문은 “실천적 지혜란 무엇인가?” 이다. 이 질문에 답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 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실천적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논할 것이다. 먼저, 반 질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이 정의하는 실천적 지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요약하면, 실천적 지혜는 삶에서 무엇이 좋고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지적 덕이다. 이를 통해 행위자는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잘 숙고하는 능력, 즉 상황의 어떤 특징이 관련성이 있고 무엇이 특정 행동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이유로 간주하는지 확인하고,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유익하거나 해로운 것으로 간주하는지를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무엇이 좋고 가치 있는지에 대한 그의 이해는 또한 그의 감정과 태도를 이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인도한다. 또한 그는 선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Van Zyl(2018), 80-81)

실천적 지혜는 기본적으로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능력이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적 지혜는 이성과 감정의 조화를 이루도록 인도하고 실천적인 기술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안다고 해서

곧바로 덕스러운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실제로 덕스러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능력이 조화를 이뤄야지 진정한 덕스러운 사람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 지점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에 따라 실천적 지혜의 추가적인 세 가지 특징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반 질은 실천적 지혜의 세 가지 추가적인 특징을 제시한다. 먼저, 실천적 지혜는 이론적 지혜와 다르다. 이론적 지혜는 과학적이거나 수학적인 진리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지적인 덕들의 집합이다. 이러한 진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규칙들의 집합을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덕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실천적 지혜의 경우 규칙들의 집합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덕스러운 행위를 하기 위한 지적인 덕은 물론 감정적인 덕과 기술적 능력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두 번째로, 실천적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첫 번째 특징과 연결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에 따르면 덕을 획득하는 것은 덕스러운 사람의 행위를 따라 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된다. 이론적 지혜나 지식은 경험과 관계없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실천적 지혜는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³⁴

이렇게 실천적 지혜는 덕을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모든 덕이 실천적 지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스완튼과 같은 다원주의자들은 덕을 행위자의 선이나 번영과 같은 단일 형태의 선에 대한 헌신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덕은 다양한 형태의 선에 대한 헌신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특성의 집합이다. 스완튼은 여러 가지 덕 중 정의, 공경, 예의와 같은 지위 기반

³⁴ Van Zyl(2018), pp.85-86

덕목은 부모, 교사, 정치 지도자 등과 같은 사람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게 대응하는 것을 요구한다. 사랑, 연민, 우정과 같은 유대 기반 덕목은 유대감이나 관계에 대한 적절한 태도나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선과 자비 같은 번영 기반 덕목은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³⁵

정리하자면 모든 경우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덕을 실천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술적 능력과 결부된 것으로 덕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정과 지식을 조화시키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덕 윤리가 옳은 행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기존 윤리 이론과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겠다.

6) 세 번째 질문: 덕 윤리는 옳은 행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제 마지막 질문, 덕 윤리는 옳은 행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의 문제에 답해야 한다. 스완튼은 옳은 행위에 대한 두 가지 논제를 제시한다.³⁶

- (1) 행위가 덕 V의 측면에서 덕스럽다 ↔ 행위가 덕 V의 목표를 달성한다.
- (2) 행위가 옳다 ↔ 행위가 전체적으로 덕스럽다.

³⁵ Swanton (2003), pp.34-48

³⁶ Swanton (2003), p.228

스완튼은 다양한 덕이 각자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그것이 덕스러운 행위이며, 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덕스러울 때 옳다고 주장한다. 즉, 한 행위와 결부된 다양한 덕들의 목표가 전체적으로 달성될 때 그것을 옳은 행위라고 한다. 스완튼의 이론은 덕의 목표를 기반으로 옳은 행위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덕에 대한 ‘목표 기반 설명’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앞서 우리는 덕이 단일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영역에 속한 덕들이 있기 때문에 다원주의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로 인해 이 목표 기반 설명은 옳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의무론이나 결과론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게 된다.

스완튼은 목표 기반 설명의 특징을 5 가지로 정리한다. 첫 번째로, 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도덕적 반응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일부 덕의 목표는 내면이라는 점이다. 결단력의 미덕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요구하므로, 당장의 행위 목표에 도달하지 않고도 이 미덕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행동에 대한 순전히 외적인 기준, 즉 어떤 동기, 성향, 성품으로 행동하든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다. 세 번째 특징은 일부 덕에는 두 가지 이상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함은 내면의 목표(편견을 제거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와 외부 목표(공정한 대우를 실현하는 것)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네 번째 특징은 목표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성실함의 목표가 단순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일 수 있다. 프로젝트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집중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완료하는 경우, 그들의 내적 상태와 관계없이 그들의 노력을 성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친한 동료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어떤 일을 할 때는, 올바른 내적 태도와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성실함의 목표가 될 수

있다. 마지막 특징은 덕의 목표는 어떤 일을 피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절제의 대상은 과도한 음주나 지나친 소비와 같은 행동을 피하는 것이다.³⁷

정리하면, 덕스러운 행위는 맥락에 의존적이며, 두 개 이상의 목표를 동시에 지닐 수 있고, 외적 기준과 내적 기준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덕 윤리는 일원적인 도덕적 원칙으로 덕스러운 행위나 옳은 행위를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옳은 행위에 대한 전체론적 관점(holistic view)을 취하게 된다. 여기에서 전체론적 관점이란 옳은 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정하고 일원적인 원칙이나 하나의 가치가 아닌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한 행위의 옳음과 덕스러움을 판단함을 의미한다.

7) 덕 윤리와 도덕적 특수주의

덕 윤리의 전체론적 관점은 덕 윤리의 도덕적 특수주의(moral particularism)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다. 도덕적 특수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보편주의(moral generalism)를 이해해야 하는데, 도덕적 보편주의란 도덕적 사고와 판단의 가능성은 도덕적 원칙의 적절한 제공에 달려있다는 견해다. 즉, 적절한 원칙을 제공한다면 도덕적 사고와 판단이 따라 나온다는 것이 도덕적 보편주의의 입장이다. 일원적인 원칙을 제공해서 옳은 행위를 결정하려는 결과론과 의무론 둘 다 도덕적 보편주의를 받아들인다. 반면 도덕적 특수주의는 도덕적 사고와 판단의

³⁷ Swanton(2003), p.234

가능성이 도덕적 원칙의 적절한 제공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지닌다. 따라서 도덕적 특수주의를 지지하면 행위의 속성은 가변적 가치를 지니고, 맥락에 따라 그 속성의 가치가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의 실천적 지혜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덕 윤리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덕 윤리가 행동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덕적 보편주의자들은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적절한 원칙을 제공함으로써 행위자에게 지침을 제공하지만, 도덕적 특수주의자들은 개별 사건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도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도덕적 판단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도덕적 특수주의는 행동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도덕적 특수주의를 받아들이는 덕 윤리는 행동 지침을 제공하고 그 이유를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트롤리 딜레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이에 대해 반 질은 덕 윤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응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로, 도덕적 특수주의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원칙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덕 윤리는 V-규칙과 D-규칙을 구분하는데 V-규칙은 상황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지 않는 원칙이다. 가령 ‘성실해라’, ‘친절해라’, ‘용감해라’와 같은 명령이 이에 포함된다. 덕 윤리는 이런 명령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인정한다. 반면 D-규칙은 상황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는 규칙이다. 트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규칙들이 이에 해당한다. 덕 윤리는 V-규칙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D-규칙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든 종류의 규칙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리고 두 번째 대응은 D-

규칙을 받아들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중요도나 우열이 달라지는 수많은 객관적인 도덕적 규칙이나 덕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트롤리 문제와 같이 그런 규칙들이 충돌하고 덕목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정 원칙이 객관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덕 윤리는 객관적 도덕 규칙이나 덕목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규칙과 덕목을 행위에 적용하는 것에는 침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⁸

콘스탄틴 샌디스는 특수주의와 결합한 덕 윤리를 ‘특수주의적 덕 윤리’ (Particularist Virtue Ethics, 이하 PVE)라고 부르고 이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다. 샌디스는 PVE 를 옹호하기 위해 두 가지 논증을 제시하는데, 먼저 샌디스는 성격적 특성이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즉 특정한 덕이 특정한 행위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담배를 한 번 피웠다고 해서 한 사람을 흡연자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한 명만 죽여도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부른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살인을 한 행위 중 살인은 중대한, 행위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한 번만 저질러도 살인자라고 규정되지만, 담배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에 한 번 피워본 거로는 흡연자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행한 행위의 심각도에 따라 성격적 특성 내지는 도덕적 규정의 관계가 달라진다. 그리고 둘의 관계는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가령 '수영선수임'과 같은 특성은 수영하는 행위가 습관화된 사람에게 적용된다. 즉, 행위가 특성의 원인이 된다. 반면 '비겁하다'와 같은 특성은 행위가 특성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³⁸ Van Zyl(2018), pp.127-129

누군가가 비겁한 행위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의 행위가 비겁함의 특성의 예시가 되었기 때문이지 그의 행위가 비겁함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격적 특성을 포함하는 도덕적 원리가 반드시 특정 행위를 필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격적 특성이나 도덕적 원칙의 객관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특정한 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³⁹

두 번째로 샌디스는 PVE 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도, PVE 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도덕적 세계와 무관한 허무주의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PVE 는 도덕 원리에 대한 허무주의를 행동 지침의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여전히 도덕적 이유의 전체론적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상황에서 도덕적 차이를 만드는 특징이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 정반대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견해를 견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특수주의의 진리는 가령 거짓말을 하는 것이 행동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와 구조를 가진 도덕과 양립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정직의 미덕을 소유한 세상은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이 될 수 없다. 상황에 따라 정직함보다 다른 덕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직함을 객관적 덕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모두가 소유한 세상에서 거짓말쟁이들이 넘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PVE 는 도덕적 세계와 무관한 허무주의적 이론이 아니다. 따라서 특수주의적 덕 윤리는 도덕적 원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허무주의적 이론이

³⁹ Sandis(2021), pp.209-212

아니다. 이는 덕 윤리가 복잡한 도덕적 상황에서 유연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함을 의미한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덕 윤리의 특성이 침묵주의와 공명한다는 것을 보이며, 트롤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침묵주의와 덕 윤리를 결합한 침묵주의적 덕 윤리를 도입할 것임을 보이겠다.⁴⁰

2. 침묵주의와 덕 윤리의 결합: 침묵주의적 덕 윤리

1) 침묵주의 개요

덕 윤리가 특수주의와 결합함으로써 보편적인 행위 지침, 보편적 원칙의 적용 가능성을 부정하게 되고, 이는 침묵주의(quietism)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된다. 침묵주의란 철학에서 이론을 성립시키기 위한 긍정적 논제의 성립 가능성을 부정하는 견해다. 이 입장에 따르면 다양한 언어게임을 포괄하는 조건이나 보편적 원칙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할 때 오히려 혼란이 더 발생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논고』에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이 명제는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와 세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궁극적으로 ‘이론적으로 규명하거나 언어로 정당화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철학이 말을 멈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철학적 문제 앞에서 일종의 침묵주의를 옹호하는 입장과 연결지어 이해될 수

⁴⁰ Sandis(2021), p.215

있으며, 철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문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시사한다.

그리고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입장도 침묵주의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인용을 보라.

카벨과 맥도웰은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우리를 ‘조건’을 찾고자 하는 강박으로부터 해방한다고 지적한다. 두 인물은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지닌 ‘치유적’(therapeutic) 성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용 이론과 회의주의를 모두 극복한다. 즉, 카벨과 맥도웰에 따르면,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를 보증하는 ‘조건’을 찾고자 하는 시도에서 온갖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언어를 “단단한 토대” 위에 정초해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치료하고자 한 철학적 질병이었다. 따라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a) 언어게임의 다양성을 모두 포괄하는 화용론적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b) 언어의 의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회의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c) 우리가 ‘조건’을 찾고자 하는 시도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이해하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윤유석(2022), 163)

카벨과 맥도웰은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을 침묵주의라고 규정하고, 언어게임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나 원칙, 규칙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지 않아도 언어게임은 충분히 잘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덕 윤리의 특성과 연결되는 이유는, 침묵주의자들이 언어게임을 정당화하는 보편적 토대나 조건이 없고,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언어게임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듯, 덕 윤리는 구체적인 개별 상황이나

맥락과 무관한 보편적 원칙을 기반으로 윤리학이 성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맥도웰은 이런 침묵주의 아이디어를 윤리학에도 적용한다. 그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화는 많은 상황에 해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가능할 뿐, 보편적 규칙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려 깊게 규칙을 만든다고 해도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덕스럽고 세심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판단이 보편적 규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생각에 반대하는 것이 일종의 철학적 현기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런 현기증을 앓는 사람들은 특정 합리성 개념에 비추어 행동하는 것이 공식화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에 의해 인도된다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편견은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 탐구』에서 규칙을 따른다는 개념에 대해 논의할 때 공격받는다. 비트겐슈타인은 2, 4, 6, 8, 10...이렇게 숫자를 더해가는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 매번 2 를 더하고 있다” 라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1000 에서부터는 4 씩을 더해 1004, 1008, 1012...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 이렇듯 그 한 사람의 보편적 공식화는 완전하지 않다. 다시 말해,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에 대한 공식화가 언제나 옳다고 보장해 줄 ‘초사실’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1000 에서부터는 4 씩을 더하는 특이한 유형을 걱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편적으로 공식화할 때 그것의 궁극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규칙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삶의 형식을 공유하는 것이지 초월적인 어떤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역적 판단의 전제들도 실은 보편적 원리가 아니라 삶의 형식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보편적 원리에 의존해야 한다는 현기증의 올바른 치료법은 특정한 문제를 마주한 철학적 사유가 익숙한 삶의 형태에 몰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외부의 어떤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다.⁴¹

맥도웰은 특정 개념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어려운 사례에 대해 논의하며, 이러한 사례에서의 불일치는 단순히 논리적 논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어떤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 논쟁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사례들이 있다. 이럴 때,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지만,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면 "당신은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말하게 된다. 이때 편견은 딜레마의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 선택지는 논증의 불완전함이 단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한 데서 온다는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는 개념이 올바르게 적용되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보편적인 공식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논증을 연역적으로 만들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이 연역적 논증의 주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그가 동일한 개념 사용에 숙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실질적인 논쟁은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선택지는 이러한 연역적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자신이 개념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확신이 환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사물이 어떤지에 대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할지에 대한 창의적인 결정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드러난다. 맥도웰은 이러한 딜레마가 연역적 패러다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즉, 모든 합리적 판단이 연역적으로 설명할 수

⁴¹ McDowell(1979), pp.336-342

있어야 하며, 이는 자동으로 강제력을 가진다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부분적으로 공유된 "유기체의 소용돌이(whirl of organism)", 즉 우리의 삶의 형식과 감상에 의존한다. 결론적으로, 충분한 논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 사례는 실제로 어려운 사례가 아니며, 그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결국 개념의 올바른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⁴²

이 논의는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윤리적 상황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트롤리 사례에서 도덕적 원칙들이 충돌할 때, 어떤 원칙을 우선시할지에 대한 문제는 보편적인 지침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맥도웰의 논증을 받아들인다면, 트롤리 딜레마에서 덕스러운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를 보편적인 원칙으로 만들 수 없으며, 선택 과정에서 어떤 도덕적 원칙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덕 윤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하기보다는, 덕스러운 행위자가 실천적 지혜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한다. 따라서, 덕 윤리는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의 선택을 보편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선택은 덕스러운 행위자가 살아온 삶의 형식과 그의 도덕적 성향에 따라 결정된다. 철학이 이와 같은 문제에서 보편적 행동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는 일종의 철학적 오류이며, 그 해결책은 철학이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이는 맥도웰의 철학적 침묵주의가 덕 윤리의 도덕적 특수주의와 일치하며, 덕들 간의 위계를 설정하는 보편적 토대나 초월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맥도웰의 견해와 덕 윤리의 강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⁴² McDowell(1979), pp.340-341

침묵주의라는 용어를 윤리학적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세피엘리가 있다. 그는 맥도웰과 같은 침묵주의자들이 이미 우리가 채택하고 싶어 하는 메타 윤리에 대한 개요는 제시했으나, 실제로 그 관점을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에 세피엘리는 메타 윤리의 영역에서 침묵주의가 단순한 허무주의나 회의주의가 아니라, 도덕적 진리가 형이상학적 속성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내재적 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방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세피엘리는 자신의 ‘객관적 침묵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피상적인(superficial) 것과 깊이 있는(deep) 것을 구분한다. 여기서 ‘피상적인 것’과 ‘깊이 있는 것’은 단순히 가치나 중요도의 차이가 아니라, 각각 (1) 행위자 내부의 심적 상태처럼 외부 요인에 영향받지 않는 것(피상적)과 (2) 세계를 표상하고 외부와 연관을 맺는 것(깊이 있는)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세피엘리는 윤리적 판단이 ‘형이상학적 대상’이나 ‘외부적 사실’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주관적 감정이나 임의적 판단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침묵주의를 메타윤리 차원에서 정당화함으로써, 철학이 모든 도덕적 문제에 절대적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는 전제를 거부하되, 도덕적 판단의 ‘객관적 가치’를 전면 부정하지도 않는 입장을 마련하려는 것이다..⁴³

피상적인 것과 깊이 있는 것의 구분을 도입하고 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윤리학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다. 일반적인 도덕적 객관주의자들은 도덕적 진리가 세계에 존재하며, 자연적 내지는 비자연적인 속성을

⁴³ Sepielli(2022), p.3 / p.16

잘 반영하고 표상해서 도덕적 진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피상적인 윤리적 문제들, 특히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트롤리 문제와 같은 사례들은 세계를 잘 표상하거나 어떤 형이상학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형이상학적 속성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다고 해서 이런 사례가 무가치하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만약 경험 과학에서 세계에 대한 표상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윤리는 형이상학적 속성이나 표상을 결여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 내재적인 평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가 피상적일지라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침묵주의에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인 도덕적 객관주의자들이 믿는 도덕적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도덕적 진리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윤리학의 외부에서 보증받는 초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도덕적 판단의 참이나 거짓 내지는 가치가 있거나 없음을 판단할 때 외부적 요소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⁴⁴

그리고 세피엘리는 그런데도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윤리적 신념이 ‘이상적 조언자’와 같은 종류의 상담가를 통해 승인받을 때 옳다고 주장한다. 이를 세피엘리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윤리적 믿음은 옳거나 참이다 ↔ 이상적인 조언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 조언자가 올바른 행동만을 하도록 조언할 수 있는 평가적 믿음들의 집합에 윤리적 믿음이 속해 있다.

⁴⁴ Sepielli(2022), pp.61-79

그는 그가 진리라고 부르는 윤리적 신념과 '어느 쪽이든 갈 수 있는' 윤리적 논쟁에 따라 형성되는 믿음을 구분한다. 서로 다른 신념을 이상적인 조언자의 머릿속에 연결하면 서로 다른 평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가령 "A 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을 얻을 수 있고, 옳을 것이다"와 "A 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을 얻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옳을 것이다"와 같이 다른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은 동일하다. 그것은 “A 를 하라” 다. 따라서 세피엘리는 둘 다 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트롤리 문제와 같은 윤리적 논쟁, 딜레마에 대한 응답으로 형성된 신념은 이상적인 조언자와 연결될 때 다른 평가 결과를 낼 뿐만 아니라 다른 명령도 낳는다. 이러한 명령이 실제로 옳은 행동을 하라는 명령이라면, 이러한 연결 믿음은 참으로 간주한다.⁴⁵

정리하자면, 맥도웰의 철학적 침묵주의는 도덕적 판단이 보편적·연역적 원칙으로 전부 환원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삶의 형식과 긴밀히 연결된다고 강조한다. 이는 덕 윤리의 핵심 개념인 실천적 지혜와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즉, 덕 윤리는 행위자가 특정한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덕과 개별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판단을 내린다고 본다. 한편, 세피엘리는 맥도웰의 이러한 철학적 침묵주의를 메타윤리 차원에서 한층 발전시키고자 한다. 세피엘리에 따르면, 도덕적 진리는 세계의 형이상학적 속성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내재적 평가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이상적 조언자’ 개념을 제안해, 윤리적 믿음이 단순히 외부 사실이나 절대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도, 행위자의 내면적 성찰과 평가 과정을

⁴⁵ Sepielli (2022), pp.79–83

통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맥도웰의 침묵주의·세피엘리의 메타윤리·덕 윤리의 도덕적 특수주의는 모두 보편적 도덕 원칙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덕적 판단이 행위자의 덕성과 구체적 맥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삼자 관계는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윤리적 난제에서 한 가지 절대적 해답을 구하는 태도가 무의미함을 부각하며, 철학이 모든 도덕 문제에 대해 완벽한 정답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규범적 숙고와 책임 있는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이후 소개할 침묵주의적 덕 윤리는 규범윤리적으로나 메타윤리적으로나 허무주의나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딜레마 상황에서 단일한 원칙을 강제하지 않고도 윤리적 판단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

2) 침묵주의적 덕 윤리

윤리학의 영역에서 침묵주의란 행위를 평가하는 데 있어 그 평가를 정당화하는 초사실이나 토대는 존재하지 않기에, 그런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포기하면 문제가 해소된다는 견해다. 그리고 이는 행위의 영역에서 개별 행위의 맥락과 무관한, 토대로서의 보편적 원칙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보편적인 행위 지침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특수주의적 덕 윤리와 침묵주의는 공명한다. 다만 침묵주의는 초사실이나 토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철학에 있어 어떤 긍정적 논제도 제시할 수 없다는 강한 주장에 커미트먼트하는 반면, 이 논문은 덕 윤리를 받아들여 객관적 미덕이 존재한다고 믿고, 철학이 개별

행위자에게 일반적인 도덕적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가령, 일반적으로 ‘용감해라’와 같은 일반적인 도덕적 명령은 타당하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히 덕들이 충돌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철학이 어떤 선택을 만드시 정당화해야 하며, 덕들 간의 위계를 설정해 줄 초월적 사실이나 근본적 원리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에 이런 경우에는 철학이 침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침묵주의 논제 중 일부만을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이 지지하는 견해를 ‘침묵주의적 덕 윤리(Quietist Virtue Ethics, 이하 QVE)’라고 부를 것이다. QVE는 다음과 같은 논제들을 받아들인다.

- (1) 객관적인 미덕이 존재한다.
- (2) 미덕들은 다양하며, 다양한 미덕의 위계를 설정해 줄 초월적 사실이나 근본적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3) 구체적인 행위의 영역에서, 우리는 객관적인 미덕에 비추어 일반적인 수준에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지침, 특히 미덕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철학이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철학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해야 한다.

QVE는 근본적으로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책을 철학이 제공해 주지 않고, 제공해야 한다는 거짓 전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침묵주의의 치료적(therapeutic) 활동과 맥을 같이한다. QVE는 다양한 사례들에서 도덕적 직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덕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고, 각 사례에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결정해 주지 않아도 행위자로 하여금 각 사례 간의 도덕적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선택에 있어 정합성과 일관성, 그리고 객관성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조언할 수는 있다. 침묵주의는 철학의 이론 건설적 역할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에 커미트먼트하는 반면, QVE 는 그보다는 약한 논제, 우리가 객관적인 덕들, 다양한 윤리적 원칙들 사이에 위계를 설정할 초월적 사실이나 근본적 원리가 없다는 논제에 커미트먼트한다. QVE 가 트롤리 딜레마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 덕 윤리와 트롤리 문제

1) 반 질의 제안

QVE 가 트롤리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덕 윤리의 관점에서 트롤리 문제를 ‘해결’ 하고자 했던 반 질의 제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반 질은 덕 윤리가 의무론과 결과론에 이은 세 번째 규범적 윤리 이론으로 발전해 왔지만, 놀랄 정도로 트롤리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 번째 이유는 덕 윤리와 도덕적 의무 간의 관계다. 트롤리 딜레마는 딜레마 상황을 정식화하고, 적용하고, 도덕적 원칙들과 의무들의 상대적인 엄격성을 평가하고, 도덕적 의무들의 위계를 설정해서 특정 행위의 허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지만, 덕 윤리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덕 윤리는 개별 행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원칙의 적용보다도 실천적 지혜와 도덕적 행위자의 덕성을 강조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물론 덕

윤리가 행위에 대한 지침을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상적인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기도 한다. 덕 윤리학자들은 행위자의 동기, 추론, 감정, 태도, 태도 등도 옳은 행동 또는 덕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때 고려한다. 그러나 트롤리 실험은 두 가지 도덕적 의무의 상대적 엄격성을 테스트하는 매우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따라서 사례는 최소한으로 축소되었다. 행위자가 내려야 하는 결정에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 실제 도덕적 딜레마에서 발견되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제거됐다. 하지만 이에 따라 덕 윤리학자들이 이 논쟁에 유용한 이바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덕 윤리학자들은 트롤리 딜레마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⁴⁶

덕 윤리학자들이 트롤리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트롤리 딜레마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반 질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딜레마의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능한 나은 대안, 최선의 대안, 제 3의 길을 찾는 데 반해 트롤리 딜레마에서는 그런 방식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트롤리 딜레마 문제에서는 5명을 죽도록 내버려두거나 아니면 한 명을 희생하도록 하는 선택지만 허용돼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의 딜레마의 두 번째 특징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 덕스러운 사람은 덕스럽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잘 대처한다. 하지만 트롤리 문제에서는 불확실성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도덕적 딜레마에서는 감정적 반응과 같은 심적인 요소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⁴⁶ Van Zyl(2022), pp.117-119

그리고 덕 윤리학자들은 딜레마를 대하는 행위자의 올바른 감정적 반응에 대해서 고려한다. 하지만 트롤리 문제에서 감정적 반응은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캠이 행위자의 의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삼중 효과의 원칙(doctrine of tripple effect)을 고안했다가 철회하고 의도성이나 감정과는 무관한 인과성에 기반한 이론인 PPH 를 제시했다는 점은 이러한 특징에 대한 예증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덕 윤리학자들은 트롤리 문제가 덕 윤리학에서 중시하는 현실적 요소들을 모두 배제하기 때문에, 트롤리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⁴⁷

마지막으로 덕 윤리가 트롤리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트롤리 문제에서 인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덕스러운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 지혜가 일종의 기술 습득과 비슷한 것으로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트롤리 문제들은 보통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참신한 예시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도덕적 판단과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덕스러운 사람이라면 트롤리 딜레마처럼 덕스러운 성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트롤리 문제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숙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은 인격적으로 내리는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이유로 인해 반 질은 덕 윤리가 트롤리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트롤리 문제가 인위적으로 구성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⁴⁸

그런데도 반 질은 덕 윤리가 트롤리 문제에 답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먼저 표준 사례에 대해, 반 질은 그 상황에 부닥쳐있는 도덕적

⁴⁷ Van Zyl(2022), pp.119-123

⁴⁸ Van Zyl(2022), pp.123-125

행위자의 선택을 설명할 때 죽이는 것과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은 추상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덕스러운 행위자라면 자비의 관점에서 어떻게 끔찍한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덕스러운 사람이라면 숙고를 통해 다섯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죽이는 것과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의 구분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죽이는 것과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 사이의 도덕적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예외 사항은 얼마든지 있고, 다섯 명을 구하기 위해 트롤리의 방향을 돌리는 것은 악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트롤리로 인한 피해의 양을 최소화하려는 덕스러워지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이기 때문에 덕 윤리학자라면 표준 사례에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옳다고 충고할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⁹

뚱뚱한 남자 사례에 대해 반 질은 뚱뚱한 남자 사례처럼 선택지가 두 가지로 분명히 제시된 경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 부닥쳐있다고 가정해 볼 것을 권유한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다섯 명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마련할 것이다. 그런데 덕스러운 사람이라면 그 과정에서 옆에 있는 뚱뚱한 남자를 밀어 기차를 멈춘다는 발상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자비의 덕목을 갖춘 사람이 타인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죽어도 되는 대상으로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뚱뚱한 남자 사례에서 덕스러운 행위자라면 뚱뚱한 남자를 밀지 않을 것이다.⁵⁰

⁴⁹ Van Zyl(2022), pp.125-127

⁵⁰ Van Zyl(2022), pp.127-131

마지막으로 루프 사례에 대해 덕 윤리는 기차의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이 어떤 동기와 이유에서 방향을 전환하는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기와 이유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이 다섯 명을 구하기 위해 이용됐다는 사실에만 주목한다. 하지만 덕 윤리학자는 그들의 이유, 동기, 목표가 무엇이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태도와 감정을 표현하는지에 관심을 둔다. 그리고 루프 사례에서 행위자는 한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기차의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행위자가 루프 사례에서 한 명을 희생하는 이유가 트롤리로 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덕스러운 행위다. 하지만 방향을 돌리는 이유가 한 명을 희생하면 5 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 즉 한 명을 수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 행위는 그 자체로는 옳은 행위였을지라도 덕스러운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⁵¹

2) 반 질의 해결책 비판

하지만 트롤리 문제에 대한 반 질의 답변은 만족스럽지 않다.⁵² 먼저 반 질이 표준 사례에 대해 답한 것을 검토해 보자. 반 질은 덕스러운 행위자가 충분히 숙고한다면, 자비의 관점에서 트롤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기차의 방향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죽이는 것과 죽도록

⁵¹ Van Zyl(2022), pp.131-133

⁵² 반 질의 견해가 덕 윤리의 관점에서 특정한 철학적 답변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덕 윤리학자가 행위자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하면 반 질의 답변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는 주장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덕 윤리학자 개인의 견해에 불과할 뿐, 그것이 덕 윤리학에 의해 정당화된 답변이라고 볼 수 없다. 덕 윤리학을 철저히 준수하는 덕 윤리학자가 행위자에게 개인이 아닌 덕 윤리학자의 자격으로 조언이나 답변을 한다면 이렇게 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다.

내버려두는 것의 도덕적 차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해당 원칙에 예외가 많다는 것을 알기에 덕스러운 사람은 그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차의 방향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해결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가급적 피해를 줄이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적은 사람이 희생되는 것이 좋다는 원칙에도 예외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외가 바로 뚱뚱한 남자 사례다. 뚱뚱한 남자 사례에서도 한 명을 희생해서 5 명을 살리는,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원칙보다는 다른 원칙이 우선시된다. 따라서 죽이는 것과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 사이의 도덕적 구분을 인정한다면 그 원칙에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반 질은 두 원칙 중 희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우위에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덕스러운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만 반 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덕스러운 사람이 덕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은 일종의 기술적 숙련과 같아서 합리적 이유를 알아서가 아니라 덕스러운 행위에 경험적으로 숙련되었기 때문이라고 반론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방어다. 덕스러운 행위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부터 덕스러운 사람이 특정한 행위를 덕스럽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모른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덕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덕이 있고 그 안에는 지적인 덕도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반 질은 행위자가 ‘충분한 숙고’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숙고를 통해 어떤 행위가 덕스러운 행위인지를 판단할 근거와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반 질은 특정 행위가 덕스러운 사람이 선택할 만한 선택지라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근거 제시가 없으므로 반 질의 답변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루프 사례에 대한 답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 질은 루프 사례에서 기차의 방향을 바꾸는 이유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 그 행위가 덕스러운 행위지만, 한 명을 희생하면 5 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즉 한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방향을 돌리는 것이라면 그 행위가 옳을지언정 덕스럽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반 질은 루프 사례에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옳은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 이유를 우리가 구성해 볼 수는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반 질은 루프 사례에서 기차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 자체로는 한 사람을 수단으로 삼을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루프 사례에서 방향을 돌리는 것 자체는 한 사람을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캠의 인식과 유사하다.⁵³

하지만 우리가 앞서 캠의 루프 사례 분석에서 비판했듯, 기차를 돌리는 것만으로 기존의 위협이 사라지고 새로운 두 번째 위협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직관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을 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사람을 열차를 멈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루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사람이 방향을 바꾸기로 했을 때, 그가 비난을 피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그가 한 사람을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한 사람을 수단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5 명을 살리기 위한 도덕적 원칙이 더 큰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그 행위자가 한 사람을

⁵³ Kamm(2007), pp.101-104 / p.118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그가 한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한 사람을 수단으로 삼았더라도 그러한 선택이 정당화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반 질의 주장과 달리, 우리의 행위 의도와 상관없이 한 사람을 수단으로 삼았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부인하고 단순히 우리가 한 사람을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만적일 뿐이다. 따라서, 루프 사례에서 문제의 핵심을 행위자의 의도에만 두었던 반 질의 답은 만족스럽지 않다.

마지막으로 반 질의 답변은 덕 윤리의 기본적인 전제들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덕 윤리는 구체적인 상황을 포함한 규칙, 즉 D-규칙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 거기에 윤리적 원칙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지 않고, 윤리 이론이 꼭 그런 종류의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 덕 윤리의 기본적인 전제다. 그런데 덕스러운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덕 윤리가 답을 제시해 준다면, 그것은 이미 행위에 대한 지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덕 윤리가 트롤리 딜레마에서 한 가지 선택지를 정당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상의 수많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 지침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세 가지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공하고자 하는 반 질의 시도는 그 자체로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덕 윤리의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만족스럽지 않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반 질의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우리는 덕 윤리가 트롤리 문제에 답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

3) 침묵주의적 덕 윤리가 제시하는 트롤리 문제에 대한 해명

이제 이 논문이 지지하는 견해인 QVE 가 트롤리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명지에 논하도록 하겠다. 먼저 QVE 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세 가지 트롤리 사례를 딜레마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세 가지 사례 모두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덕스러운 사람이라면 원하지 않을 결과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한 가지 이상의 덕목 내지는 규칙을 어기게 만들기 때문이다. 먼저 표준 트롤리 사례의 경우를 살펴보자. 표준 트롤리 사례에서는 그대로 기차를 내버려두면 5 명이 죽고 방향을 돌리면 5 명을 살리는 대신 1 명이 죽게 된다. 여기에서 방향을 돌리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라’는 도덕적 규칙을 어기게 된다. 하지만 방향을 돌려 한 사람을 죽이면 ‘죽이는 것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 나쁘다’라는 규칙을 어기게 된다. 우리는 두 규칙 모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라는 원칙이나 죽이는 것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 나쁘다는 규칙 둘 다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표준 사례에서 어떤 선택을 하던 둘 중 하나의 규칙은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 사례는 비극적인 도덕적 딜레마다. 딜레마를 받아들이는 올바른 덕 윤리의 일차적인 태도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덕스러울 수는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로 QVE 는 이렇게 덕이나 도덕적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우선시할지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하얀 거짓말 사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도덕적 규칙과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라는 규칙이 충돌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아무리 봐도

우스꽝스럽게 머리카락을 손질한 준형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준형이 우리에게 자신의 머리 스타일이 멋진지에 관해 물을 때, 우리는 준형에게 우리의 생각을 솔직히 말해줄 것인가 아니면 준형의 마음을 배려해서 선한 거짓말을 할 것인지 고민한다. 어떤 규칙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는 다양한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 준형이 그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준형의 성격이 어떤지, 준형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리 이론이 어떤 선택을 하라고 행동 지침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덕 윤리는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고 숙고해서 최선의 판단을 하라는 원론적인 조언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상황에 맞는 올바른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맥락이기 때문에 특정 선택지를 고르라는 조언을 제공해 줄 수는 없다. 트롤리 사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트롤리 사례들은 일상적인 딜레마와 달리 여러 가지 조건이 훨씬 더 명확하기는 하지만, 결국 충돌하는 도덕적 원칙들 사이에서 어떤 것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 행위자의 신념이나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덕 윤리는 원칙적으로 보자면 트롤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덕 윤리는 트롤리 사례가 덕이나 도덕적 원칙의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고, 그러므로 딜레마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런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윤리 이론이 아니라 개인의 결단이라는 것이 덕 윤리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다.

QVE 는 트롤리 사례를 덕, 도덕적 원칙 간의 충돌로 파악한다. 먼저 표준 사례를 보자. 표준 사례에서 방향을 돌리지 않고 5 명을 죽도록 내버려둔다면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라”라는 원칙을 어기게 된다. 반면 5 명을 살리기 위해 방향을 돌려 한 명을 희생하면 “죽이는 것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

나쁘다"라는 원칙을 어기게 된다. 표준 사례를 맞닥뜨린 행위자는 두 원칙 중 어느 쪽 더 원칙을 우선할 것인지를 골라야 한다. 반면 뚱뚱한 남자 사례를 보자. 뚱뚱한 남자 사례에서 뚱뚱한 남자를 떨어뜨리지 않고 5 명을 죽도록 내버려두면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라”라는 도덕적 원칙을 어기게 되지만, 뚱뚱한 남자를 떨어뜨려 기차를 멈추고 5 명을 구하면 죽이는 것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 나쁘다는 원칙과 더불어 “타인을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라” 라는 원칙과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수단을 쓰지 말라”라는 원칙을 어기게 된다. 이렇게 한 명을 희생하는 선택을 했을 때 표준 사례에 비해 뚱뚱한 남자 사례에서 어기게 되는 원칙이 더 많으므로 한 명을 희생하는 것의 도덕적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그리고 루프 사례를 보자. 루프 사례에서 한 사람을 희생할 때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수단을 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루프 사례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루프 사례에서 한 사람을 희생하기로 했을 때 죽이는 것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 나쁘다는 원칙과 한 사람을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원칙을 어기게 된다. 이 경우 뚱뚱한 남자 사례보다는 한 명을 희생하는 것의 도덕적 부담이 적지만 표준 사례보다는 부담이 크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준 사례	뚱뚱한 남자 사례	루프 사례
5 명을 죽도록 내버려둔다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라’ 는 원칙 어김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라’ 는 원칙 어김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라’ 는 원칙 어김

5 명을 구하고 1 명을 희생한다	‘죽이는 것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 나쁘다’라는 원칙 어김	‘죽이는 것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 나쁘다’라는 원칙 어김 + ‘사람을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라’라는 원칙 어김 +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단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원칙 어김	‘죽이는 것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 나쁘다’라는 원칙 어김 + ‘사람을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라’라는 원칙 어김
-----------------------	---	---	--

표 2

행위자는 각 사례에서 양 선택지가 어기게 되는 도덕적 원칙 중 어느 쪽이 더 엄중한 원칙인지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린다. 행위자는 원칙 간의 충돌에서 한쪽 입장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 더 무겁다고 판단하여 한쪽 행위를 선택하거나 양측 원칙의 무게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판단과 선택을 유예하고 운에 맡길 수 있다. 즉, 행위자에게는 (1) 5 명이 죽도록 내버려둔다 (2) 1 명을 죽인다 (3) 운에 맡긴다(판단을 유예한다)는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지게 된다.

QVE 는 각 사례에서 행위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QVE 가 아무런 조언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QVE 는 표준 사례, 뚱뚱한 남자 사례, 그리고 루프 사례에 대해 각 경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세 가지 사례의 도덕적 차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QVE 는

행위자에게 세 가지 사례에 대한 판단의 정합성과 객관성을 요구할 수 있다. 가령 표준 사례에서 1 명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기차의 방향을 돌리지 않겠다고 판단한 사람이 뚱뚱한 남자 사례에서는 한 명을 희생해도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비정합적인 판단이다. 혹은 두 가지 사례 혹은 세 가지 사례 모두에서 도덕적 원칙 간의 무게가 차이가 없으므로 세 경우에서 모두 판단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해당 행위자의 인식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행위자가 객관적이지 않은 도덕적 원칙을 기반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다. 가령 행위자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재미있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므로 한 명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애초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칙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PVE 는 덕 윤리 중에서도 도덕적 원칙의 객관성을 긍정하는 견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도덕적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우리는 직접적 조언과 간접적 조언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 주장을 더욱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다. 직접적 조언이란 트롤리 문제와 같은 상황에서 특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방식의 직접적인 조언이고, 간접적 조언이란 직접적으로 특정 선택을 유도하지는 않지만, 행위자로 하여금 덕의 객관성, 합리성, 일관성, 정합성을 어기지 않도록 제공하는 간접적인 방식의 조언이다. 철학은 트롤리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없지만, 간접적인 조언은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QVE 는 규범적 윤리 이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QVE 는 트롤리 문제가 딜레마라고 주장하며, 그것이 딜레마인 이유는 어떤 선택지를 고르더라도 최소 하나 이상의 도덕적 원칙을 어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QVE는 어떤 도덕적 원칙을 우위에 둘 것인지에 관해서는 결정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원칙 중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할지에 대한 근본적 원리나 초월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덕 윤리에 따르면 트롤리 문제는 실제로 문제가 되지만 그것은 철학이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는 종류의 문제다. 따라서 철학은 트롤리 문제에서 선택하는 데 있어 직접적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없고, 직접적 조언을 요청받을 때 침묵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조언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덕 윤리는 도덕적 원칙들의 객관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각 사례가 어떤 도덕적 원칙과 결부되어 있는지에 따라 특정 선택지가 어떤 원칙을 어기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행위자가 트롤리 문제들에서 비정합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선택을 할 경우 비판할 수 있다. 그래서 QVE는 트롤리 문제에 직면한 행위자에게 간접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QVE는 트롤리 문제에서 발생하는 덕들 간의 충돌을 철학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침묵주의적 논제를 받아들이지만, 각 사례 간의 도덕적 차이나 객관적인 덕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철학이 탐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QVE는 트롤리 문제에 대해 철학의 답변 가능성을 제한하지만, 철학이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객관적인 덕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철학은 허용주의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QVE의 논지다.

QVE는 기존의 윤리 이론들이 직면해 있던 문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먼저 다양한 도덕적 원칙 중 왜 특정한 원칙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명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침묵주의는 애초에 다양한 원칙 중 하나를 최우선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초월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QVE 는 특정한 도덕적 직관을 참이라고 가정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애초에 침묵주의는 특정한 직관에 의존하는 것을 삶의 형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그것이 보편적 원칙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도덕적 직관이 참인지 아닌지의 논란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서도 QVE 는 상대주의 내지는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침묵주의적 견해는 합리성의 기반이 초월적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합리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객관성, 정합성, 합리성을 잃은 선택과 판단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을 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QVE 는 트롤리 사례 간의 도덕적 차이를 잘 설명할 수 있다. 침묵주의는 트롤리 사례와 결부된 다양한 덕과 도덕적 원칙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특정 사례에는 개입하지만, 다른 사례에는 개입하지 않는 도덕적 원칙과 덕의 개념을 활용해 각 사례간의 도덕적 차이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일원주의적 이론에 비해 트롤리 문제에 대한 더 좋은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QVE 는 덕 윤리가 트롤리 문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입장이다. QVE 는 트롤리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윤리 이론들이 직면해 있던 잘못된 전제들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치유적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QVE 에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을 검토하고 그것들이 QVE 를 심대하게 위협하지 않음을 보이겠다.

제4장 예상되는 비판에 대한 대응

1. 침묵주의적 덕 윤리가 상대주의를 함축한다는 비판과 대응

QVE 에 제기될 수 있는 첫 번째 비판은 QVE 가 상대주의를 함축한다는 비판이다. 침묵주의적 덕 윤리의 핵심은 도덕적 다원주의에 대한 커미트먼트다. QVE 는 도덕적 다원주의에 커미트먼트하기 때문에 하나의 상황에 대해 다양한 도덕적 원칙이 개입할 수 있고 나아가 각 도덕적 원칙이 다른 선택을 지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QVE 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철학이 침묵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의 전개를 두고 QVE 가 각자의 윤리 원칙과 기준이 모두 옳다, 옳음의 기준은 개인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상대주의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비판에 따르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보편적인 규범적 근거의 추구를 포기함으로써 침묵주의적 덕 윤리는 하나의 도덕적 관점이 다른 관점보다 객관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는 상대주의적 주장에 동조한다. 모든 도덕 원칙이나 미덕이 동등하게 타당하다고 본다면, 한 행동을 다른 행동보다 선호하는 근거는 보편적인 윤리적 추론이 아니라 상황이나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대주의와의 연결점은 QVE 의 이론적 토대에서부터 도출된 결과다.

윤리 이론의 기본적인 목표는 객관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침묵주의적 덕 윤리학의 이론적 틀은 상황에 따른 도덕적 판단의

복잡성을 인정함에 따라 이러한 보편적 원칙에 대한 탐구를 포기함으로써 도덕적 객관성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약화한다. 이러한 객관성의 약화는 도덕적 판단이 보편적인 기준 없이 개인의 관점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주의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윤리학의 핵심은 윤리적 의견 불일치에 대한 참여와 해결이다. QVE 의 상대주의적 함의는 이 영역에서 중요한 이론적 도전을 제기한다. 보편적인 판단 기준 없이 모든 도덕적 관점에 동등한 타당성을 부여하는 이론은 윤리적 의견 불일치에 대한 해결의 근거를 잃게 된다. QVE 를 받아들인다면, 트롤리 문제에서 서로 상충하는 의견 충돌은 그저 단순한 의견이나 신념의 차이에 그칠 뿐이다. 이런 윤리적 문제에 호소할 보편적인 규범적 틀이 없다면 윤리적 의견 불일치에 관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를 의미 있게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도를 진술하는 일이 된다. 결과적으로 침묵주의적 덕 윤리에 내재한 암묵적 상대주의는 윤리적 담론의 과정을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무의미하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QVE 는 상대주의를 함축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QVE 가 상대주의적 함축을 지닌다는 비판은 QVE 의 침묵주의적 논제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QVE 는 객관적 덕들이 충돌하는 경우에서, 어떤 덕목이 더 우위에 있는지 결정해 줄 수 있는 초월적 사실이나 근본적 원리가 없다는 논제를 주장한다. 즉, 객관적 덕목들이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충하는 선택지들이 모두 허용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만약 QVE 가 상대주의를 함축한다면, 트롤리 문제에서 두 가지 선택지 중 어떤 선택지가 더 옳은지의 여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QVE 는 이런

종류의 주장에 커미트먼트 하지 않는다. QVE 는 오히려 이런 윤리적 딜레마 상황은 객관적으로 철학이 답을 내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해서 철학이 직접적으로 답을 제공하려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는 상대주의와는 거리가 먼,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QVE 가 상대주의적 함축을 지닌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또 QVE 가 불일치의 문제에 있어 개인의 결단에 맡기는 것이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의 탐구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비판도 마찬가지로 QVE 가 침묵주의 논제를 적용하는 상황의 범위를 오해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QVE 는 모든 종류의 불일치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QVE 는 객관적 덕목들이 충돌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철학이 특정한 덕을 더 우선시할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모든 종류의 불일치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QVE 는 비록 트롤리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어떤 덕이 더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는지 결정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각 사례 간의 도덕적 차이에 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 표준 사례에서 한 명을 희생하는 것보다 똥똥한 남자 사례에서 한 명을 희생하는 것이 더 도덕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QVE 가 윤리학이 해결해야 할 도덕적 불일치의 문제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상대주의를 함축하게 된다는 주장은 비약이다.

결론적으로 QVE 가 상대주의를 함축한다는 비판은 QVE 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QVE 는 객관적 덕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덕목들이 단일하지 않고, 덕목들 간의 위계를 설정할 근본적 원리나 초월적 사실이 없기에 객관적인 덕들이 충돌할 때 있어서 침묵해야 한다는 침묵주의적

논제를 받아들일 뿐이다. 이런 제한적인 침묵은 상대주의를 함축하지 않고, 오히려 철학이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거부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침묵주의적 덕 윤리의 급진성과 과격성에 대한 비판과 대응

두 번째로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은 트롤리 문제에 대한 QVE 가 제시하는 해결책의 과격성과 급진성이다. QVE 의 급진성과 과격성에 대한 비판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QVE 의 급진성은 철학적 참여의 가치와 목적을 근본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철학은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포함하여 인간 사고의 깊이와 우리 존재의 복잡성에 대해 질문하고, 이해하고, 탐구하는 데 전념하는 학문이다. QVE 는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대응책으로 침묵을 주장함으로써 도덕적, 윤리적 틀을 심오하게 형성해 온 풍부한 철학적 탐구 전통을 무시할 위험이 있다. 두 번째 세부적인 문제로는 QVE 는 윤리적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다. 트롤리 문제와 같은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는 도전적인 도덕적 질문에 직면하고, 우리의 가치를 검토하고, 윤리적 판단의 함의를 고려하므로 가치가 있다. QVE 는 이러한 딜레마에 내재한 복잡성을 인정하지만, 판단을 기권하라는 급진적인 요구는 이러한 딜레마가 드러내는 윤리의 문제를 무시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입장은 의도치 않게 윤리적 추론과 도덕적 성찰이라는 어려운 작업을 수용하기보다는 회피하는 일종의 윤리적 안일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QVE 의 급진성은 도덕적 책임과 행동에 관한 우려도 발생시킨다. 많은 현실 상황에서 개인과 사회는 종종

불확실성과 도덕적 모호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침묵주의적 접근법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도덕적 도전에 직면했을 때 아무 행동을 하지 않거나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윤리적 의사 결정에는 참여와 성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행동이 필요하다.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대응으로 침묵을 조장하는 QVE 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도덕적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리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약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QVE 는 윤리적 딜레마의 복잡성과 철학적 이론화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이지만, 철학적 참여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윤리적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며 도덕적 책임과 행동의 중요성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윤리적 탐구와 의사 결정에는 침묵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의미 있게 살도록 도전하는 어려운 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QVE 는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두 번째 비판의 첫 번째 부분, QVE 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철학적 참여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혐의는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다. 왜냐하면 QVE 가 도덕적 객관주의를 유지하는 한, 우리는 어떤 가치나 원칙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에 대한 탐구를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 트롤리 문제가 이러한 원칙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탐구의 필요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다양한 윤리적 사례에서 발생하는 직관의 차이를 포착하고, 그 직관의 차이가 실제 객관적 덕이나 원칙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문화적 차이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침묵주의가 윤리학 분야에 있어서 철학의 참여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대응할 수 있다. 또한 QVE가 윤리적 딜레마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결국 특정한 견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종의 윤리적 안일성을 일으킨다는 두 번째 비판점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필자가 제시한 방법은 각 사례에 결부된 도덕적 덕과 원칙의 목록을 정리하고 각 사례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분석함으로써, 행위자가 다양한 사례에서 각각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정합적이고 일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비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QVE는 철학이 객관적 덕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정한 덕이나 선택지를 정당화해 줄 초월적 사실이나 근본적 원리가 없음을 주장할 뿐, 다양한 윤리 사례의 도덕적 차이와 분석을 포기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각 윤리적 사례의 도덕적 차이, 윤리적 무게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단을 내린다면 침묵주의는 그런 태도야말로 안일한 태도라고 먼저 나서서 비판할 것이다. 따라서 QVE가 윤리적 안일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QVE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한 사람들의 도덕적 책임과 행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먼저, QVE가 침묵을 요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객관적 덕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그 덕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해줄 초월적 근거가 없다는 맥락에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지, 개별 행위자들이 특정한 선택지를 골라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약 개별 행위자가 모든 트롤리 사례에 대해 기권한다면, QVE는 해당 행위자가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거나, 그냥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할 수 있다. 도덕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비난 가능성을 QVE는 받아들인다. QVE는 일원주의적 윤리 이론들보다 많은 선택지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허용주의적인 면을 지니고 있지만,

상대주의나 주관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개별 행위자의 선택이 도덕적 객관성을 잃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QVE 는 그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위의 교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QVE가 도덕적 책임이나 도덕적 행위의 가치를 약화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5장 결론

이 논문은 트롤리 문제에 대한 기존의 비결과주의 이론들의 해결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존 이론들이 트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객관적으로 추구할 만한 덕목들과 원칙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일원주의적인 이론은 반드시 한 가지 덕목이나 원칙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임을 밝혔다. 그래서 우리는 다원주의적 윤리 이론이 필요하고, 다원주의적 이론 중에서도 규범적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덕 윤리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덕 윤리가 트롤리 문제에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은 QVE로, 충돌하는 덕목들 사이에서 위계를 정해주는 것은 철학의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트롤리 문제를 해결하거나, 트롤리 문제는 사실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⁵⁴이 아니라, 트롤리 문제는 실제로 객관적인 덕목들이 충돌하는 문제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답을 철학이 제공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답변들과 궤를 달리한다.

⁵⁴ 철학적으로 옳은 답변을 가질 수 없는 문제가 진정한 문제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철학적 문제는 반드시 해답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논리 퍼즐이 아니라, 도덕적·개념적 긴장과 가치 충돌을 드러내고 반성하게 하는 계기로도 기능한다. 일원주의적 답변을 요구하는 전제를 버릴 때, 트롤리 문제는 ‘잘못 성립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답 불가능한 ‘딜레마’를 포착함으로써 도덕 판단의 한계와 복잡성을 조명한다. 이는 마치 자유의지-결정론 문제나 심신 문제처럼 해결하기 어려우나 철학적 성찰을 풍부하게 하는 난제들을 우리는 이미 ‘정당한 철학적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해답 불가능성이 그 문제의 철학적 정당성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딜레마 자체를 통해 철학적 이해가 깊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논문의 작업은 세 가지 의의를 지니고 있다. 먼저, 트롤리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배제되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던 덕 윤리를 논의의 영역으로 도입한 데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의무주의, 공리주의와 함께 규범적 윤리 이론으로서 덕 윤리는 많은 주목을 받고 연구되고 있지만, 덕 윤리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트롤리 문제와 같은 윤리적 상황, 윤리적 퍼즐 풀기와 같은 영역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덕 윤리의 개성과 독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덕 윤리가 정말 의무주의나 공리주의와 같은 규범적 이론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을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덕 윤리가 트롤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덕 윤리가 트롤리 문제와 같은 윤리적 상황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계기를 마련했다.

두 번째로 덕 윤리가 트롤리 문제에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 QVE 라고 제시함으로써 트롤리 문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딜레마라는 것을 보다 잘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트롤리 문제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는 원치 않는,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 맥락에서 트롤리 문제는 딜레마고,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침묵주의는 그런 트롤리 문제의 딜레마적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고 고려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트롤리 문제의 특징을 다른 이론들보다 더 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QVE 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윤리적 직관을 포용할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우리는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덕목이나 원칙을 우선시할지에 대해 고민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덕들 사이의 위계를 설정할 초월적 토대가 없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 상황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덕스러울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철학은 두 선택지 중 하나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일원주의적 접근에 기반한 답변은 결국 더 나은 선택지가 존재하며, 아무리 복잡한 윤리적 상황일지라도 철학이 답을 줄 수 있으며 한쪽 선택지가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개인의 신념 차이나 직관의 차이를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QVE 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한 행위자 개개인의 윤리적 신념이 객관성, 정합성, 혹은 일관성을 잃지 않는 한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가능한 입장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복잡한 윤리적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다.

QVE 는 철학의 한계를 설정하는 견해지만, 다른 한편 철학의 다양한 가능성을 긍정하기도 한다. 트롤리 딜레마를 연구하는 학자들 관점에서 일원주의적 전제가 참일 경우 수많은 이론 중 오직 하나의 이론만이 올바른 이론으로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일원주의적 전제를 버리고 QVE 를 받아들일 때 철학이 특정한 선택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신 트롤리 문제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각자의 이론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가령, 우리가 앞서 논의한 캠의 PPH 에서 각 사례의 인과성을 고려하거나, 바우만의 PEH 에서 각 상황에서 각자가 처한 상황의 평등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은 확실히 트롤리 딜레마가 어떤 객관적 덕목이나 원칙들과 결부되어 있는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QVE 는 트롤리 문제에 대한 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트롤리 문제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다양한 입장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QVE 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트롤리 문제에 관한 연구와 이론 정립이 반드시 이기거나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트롤리 문제를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동 작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이런 강점들로 인해 QVE 는 트롤리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이다.

참 고 문 헌

국문자료

윤유석. (2022). 사용 이론과 회의주의를 넘어서: 비트겐슈타인의 정적주의. *철학논집*, 69, 143-178.

해외자료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trans. W. D. Ross, Book II, Chapter 6 (1106b36-1107a2), <https://classics.mit.edu/Aristotle/nicomachaen.html>, accessed 241220.

Baumann, P. (2022). Trolleys, Transplants and Inequality: An Egalitarian Proposal. *Erkenntnis*, 87(4), 1737-1751.

Foot, P. (1967). The Problem of Abortion and the Doctrine of the Double Effect. *Oxford Review*. 5:5-15.

Kamm, F. M. (2007). *Intricate ethics: rights, responsibilities, and permissible harm*. Oxford University Press.

— (2016). *The trolley problem mysteries*. Oxford University Press.

Kagan, S. (2016), Solving the Trolley Problem in Kamm(2016), pp.151-165.

Lamprecht, S. P. (1920). The need for a pluralistic emphasis in ethics. *The Journal of Philosophy, Psychology and Scientific Methods*, 17(21), 561-572.

- McDowell, J. (1979). Virtue and reason. *The monist*, 62(3), 331–350.
- Postow, B. C. (1989). Thomson and the trolley problem.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27(4), 529–537.
- Ross, W. D. (2002). *The right and the good*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 Sandis, C. (2021). Virtue ethics and particularism. In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 (Vol. 95, No. 1, pp. 205–232). Oxford University Press.
- Sepielli, A. (2021). Quietism and Counter-Normativity. *ERGO—AN OPEN ACCESS JOURNAL OF PHILOSOPHY*, 7, 457–479.
- (2022). *Pragmatist Quietism: A Meta-Ethic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 Swanton, C. (2003). *Virtue Ethics: A Pluralistic View*. Oxford University Press.
- Thomson, J. J. (1984). The trolley problem. *Yale LJ*, 94, 1395–1415.
- Van Zyl, L. (2018). *Virtue ethics: A contemporary introduction*. Routledge.
- (2022). Virtue ethics and the trolley problem. In *The Trolley Problem* (pp. 116–13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ttgenstein, L. (1922).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with Introduction by B. Russell. Kegan Paul, Trench, Trubner and. Co., Ltd., London and Harcourt, Brace and Company. Inc., New York.

ABSTRACT

Dissolving the Trolley Problem: A Quietist Virtue Ethics Approach

Intae Kim

Department of Philosoph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non-consequentialist ethical theories of the trolley problem and to propose a new alternative from the perspective of virtue ethics. This paper argues that existing theories fail to properly resolve the conflict of virtues due to their monistic approach, and stresses that a pluralistic ethical theory is needed to properly address the trolley problem. To this end, I propose Quietist Virtue Ethics (QVE), which combines virtue ethics and quietism. QVE rejects the premise that philosophy should justify a particular virtue or option in situations where objective virtues are in conflict and argues that philosophy should remain silent in such dilemmas. In doing so, he emphasizes that the trolley problem is not a problem to be solved, but rather that its dissolution is a recognition of the limitations of philosophy.

The thesis is structured as follows. Chapter 2 critically examines Francis Camm's principle of permissible harm and Peter Bauman's principle of equal harm in relation to three representative cases of the trolley problem: the standard case, the fat man case, and the loop case. In doing so, it demonstrates the failure of non-consequentialist theories to solve the trolley problem in a monistic approach. Chapter 3 explains the basic concepts and features of virtue ethics and shows that its pluralistic nature allows i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monistic ethical theories. It then critically examines Van Zyl's argument that virtue ethics can be used to justify certain choices in the trolley problem and argues that quietist virtue ethics can account for moral differences between trolley problems. Chapter 4 examines the criticisms that quietist virtue ethics implies relativism and that the theory is too radical and shows that these criticisms do not seriously undermine QVE.